

‘正心’의 詩學과 자연시**

—退溪詩를 中心으로—

金 泰 鴈*

● 目 次 ●

- | | |
|--------------|-------------------------|
| I. 緒 言 | III. 內的 修養과 자연시 |
| II. ‘正心’의 詩學 | 1. ‘賞自然’의 修養的 意味와 美的 가치 |
| 1. 文學의 存在意味 | 2. 山水詩 |
| 2. ‘正心’과 感興 | IV. 結 言 |

I. 緒 言

퇴계 이황(1501~1570)은 16세기 사림과 문학의 전성기에 앞서, 사림과 문학의 근본이념이라 할 도학주의 문학의 한 원류를 이루어 놓았던 분이다. 도학주의 문학이라 한 것은 문장이 도를 담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이 담아야 할 ‘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中庸』의 ‘率性之謂道’란 말과 같이 심성의 수양을 통하여 체득되는 ‘천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도학주의 문학을 퇴계의 문학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우선 그가 ‘문학을 배움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¹⁾고 한 말을 주

*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안동대학교부설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제14호(1993) 게재논문
“이 논문은 92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退溪全書』 四冊, 言行錄, 卷2, 類編, 先生曰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 (成

목해 본 것이다. 이 표현을 환언하면, 그것은 퇴계가 문학의 효용 가치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에다 두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正心’의 실체는 곧 心性陶冶, 性情醇化 등과 같은 뜻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²⁾ 오늘날 우리가 퇴계의 문학을 도학주의 문학의 한 전형으로 보는 이유도 이러한 데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퇴계의 ‘正心論’이 그의 문학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잣대라 보고, 그의 문학과 관련한 언급들을 통해 먼저 正心論을 개관하고, 그 이론의 토대 위에서 퇴계시에 나타난 ‘正心’의 形象들을 고찰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시의 존재의미를 ‘正心’에다 두었던 퇴계의 시학을 그 자신의 言說이나 詩句를 통하여 파악한 다음, 그 시학이 시창작상의 주요이론이었음을 구명하고, 제Ⅲ장에서는 ‘正心’의 詩學이 ‘賞自然’이란 속성(性情醇化)과 불가분의 연계속에 있음을 고찰하여 ‘상자연’에 의한 감흥(자연시)이 곧 ‘정심’의 시학을 형성케한 素因임을 밝혀 그 문예미적 특성을 일별한 후 그에 따라 자연시를 감흥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주제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正心’의 詩學

1. 文學의 存在意味

16세기는 성리학이 사상적 심화를 보이면서 道本 文末의 이론체계가 종전보다 더욱 확고해짐으로써 문학의 도학화가 촉진되었다. 가령 퇴계가 儒家를 정의하면서 ‘유가의 의미는 스스로 분별되는 것이니 문예에 공교로운 사람은 유가가 아니며, 과거에 급제함을 취하는 사람도 유가

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以下『退溪全書』一冊, 二冊, 三冊, 四冊, 五冊은『全書』1, 2, 3, 4, 5로 略稱함)

2) 林煥澤 教授는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에서 退溪의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를 인용하여, 이 단계에서는 道의 개념이 道德 心性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韓國 文學史의 視角』 p.371 참조

가 아니다.’³⁾하고, 또한 ‘詩가 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긴절한 것은 아니다.’⁴⁾한 것을 보더라도, 종래의 詞章 위주의 문예에 몰두하는 태도를 배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가 문학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先儒가 말하되 ‘하루에 半은 의리의 書를 읽고 半은 문학의 書를 읽으라’ 했다. 만일 도를 구하고자 하면서 문장의 書만을 읽는다면 그 用工의 地를 얻기 어렵다.⁵⁾

윗 글은 당시에 도학서보다 문학서를 너무 선호하여 독서하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지만, 퇴계가 선유의 ‘하루에 반은 義理之書를 읽고 반은 文章之書를 읽으라’ 한 말을 인용하여 道學書·文學書를 반반씩 읽으라 한 것을 본다면, 문학서가 도학서에 못지 않게 중요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퇴계가 이렇게 문학서에 비중을 둔 까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학의 ‘정심’기능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성실한 제자 月川 趙穆(1524~1606)이 ‘마음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문학을 잘 한다고 한들 무엇에 쓰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퇴계가 이에 대답하기를 ‘문학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문학을 배움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문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⁶⁾ 즉 ‘문학을 함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의 효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학을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본 것이며 따라서 문학을 하는 일은 마땅히 대단한 의의를 갖게 된다.⁷⁾ 이는 곧 도학의 추구하는 바가 원래 인격의 수양과 분리될 수 없

3) 『全書』 4, 언행록, 권5, 「論科舉之弊」, 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取科第非儒也.

4) 同上, 卷5, 類編, 詩於學者最非緊切.

5) 『全書』 4, 言行錄, 卷2, 類編, 先生曰先儒云 一日之間 半則讀義理之書 半則讀文章之書 學者若欲求道 而專讀文章之書 則難用工之地矣.

6) 『全書』 4, 言行錄, 卷2, 類編, 余(月川)因率爾而對曰 心行不得正 雖有文學何用焉 先生曰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

는 것이었지만,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문학의 철저한 도학화이다.

퇴계는 이와 같이 문학의 존재의의를 ‘정심’의 기능에 두었기 때문에 문학 그 자체도 이 ‘정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月川の 詩의 병폐를 지적한 다음 글을 주목해 보자.

공의 詩를 자세히 보니, 근래 많은 진전과 취미를 얻은 듯하여 기쁜 마음이 들었네. 그런데 거기에는 과시하고 통쾌해하며 자랑하고 자부하여 스스로 기뻐한 태도가 없지 않아 謙虛斂退의 溫厚한 뜻이 적으니, 아마 이같이 하기를 말지 않는다면 결국 진덕수업의 實에 해로울까 걱정되네. 그 첫 장 ‘돌아오는 十里의 강마을 길을, 숲속으로 잠자리를 찾아가는 새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한 一句는, 바로 공이 사람이(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을 초연히 홀로 터득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니,⁸⁾ 詩人趣味로 말한다면 매우 득의한 것이나, 學問意思로 본다면 아마 病處가 바로 此句에 있는 듯하네.⁹⁾ 왜냐하면 너무 빨리 자부하려하기 때문일세.¹⁰⁾

7) 林燦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p.37. (創作과 批評社, 1984).

8) ‘새들만이 알고 있다’ 했을 때 얼핏 보면 표현상에 착오가 없는 듯한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첫째, 이 표현을 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새가 안다’함은 결국 새가 인간처럼 인식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되므로 그 표현이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즉, 새가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는 새 자체의 범위를 초월한 말이라는 것이다. 둘째, 月川の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들만이 알고 있다’고 표현한 자체는, 作者 月川이 곧 <새들만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되므로> 이것은 앞의 경우보다 더욱 초월적인 표현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표현은 새의 범위 밖의 것을 안다고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9) 月川の 詩句를 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詩人趣味’란 詞章의 趣向의 詩라 할 수 있고, ‘學問意思’란 道學主義 文學(正心論)의 詩라 할 수 있다.

10) 『全書』 1, 권23, 書, 『與趙士敬』 細看公詩 近覺有長進趣味可喜 但其間不無有誇逞矜負自喜之態 而少謙虛斂退溫厚之意 恐如此不已 綜 酷有妨進德修業之實也 其首章歸來十里江路 宿鳥趨林只自知 此一句 正是公所以自言其超然獨得於人不及知處 以詩人趣味論之 亦甚得意 然以學問意思看來 正恐病處在此句上 何者以其太早計也.

月川の 詩가 謙虛·斂退·溫厚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誇逞·矜負·自喜한 氣象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퇴계는 이러한 시로는 進德修業 즉 도덕과 인격을 닦아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進德修業이라 한 것은 ‘正心’과 동일한 뜻이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환언하면, 이는 퇴계가 시를 ‘正心’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誇逞·矜負·自喜한 氣象을 못마땅히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상이 제거되어야 시가 謙虛·斂退·溫厚하게 된다고 보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陶山十二曲跋」에서 翰林別曲類의 矜豪放蕩 褻慢戲狎과 「六歌」의 玩世不恭을 溫柔敦厚性이 적다고 해서 배격하고, 문학을 溫柔敦厚쪽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는 이렇게 문학이 溫柔敦厚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性情을 醇化(正心)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¹¹⁾ 이 역시 月川の 詩의 병폐를 지적한 곳에서의와 같이 문학을 ‘正心’쪽으로 나아가게 한 것과 같은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藥圃(鄭琢의 號, 字 子精, 1526~1605)의 시의 병폐를 지적한 곳에서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병폐극복의 방안까지 제시를 하였다.

그대는 오직 많은 것을 자랑해서 浮靡함을 다투고 快한 기분이 흘러 넘치는 것을 좋아해서 말이 혹 放誕하고 義가 혹 龐雜한데 이르렀는 바, 일체를 불문하고 입과 붓에 맡겨 어찌 함부로 써 내려갔는가. 비록 한 때의 快함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아마 만세에 전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에 능하여 습관으로 폭 짓어들게 되면 말을 삼가고 放心을 수렴하는데도(謹出言收放心) 더욱 해로울 것이니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즉 古今名家의 글을 취하여 착실히 加工하고 본받는다면 거의 타락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중략) 옛날 시를 잘 했던 사람들은 천백 번 단련하고도 만족함에 이르지 아니하면, 남에게 시를 함부로 내보이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詩語가 남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죽어도 쉬지 않으리다.’하였으니, 거기에 무한한 語言이 있지 않은가!¹²⁾

11) 『전서』 2, 권43, 「陶山十二曲跋」 참고

윗 글에서 퇴계는 藥圃가 誇多鬪靡 逞氣爭勝하기를 좋아해서 詩의 言義가 放誕 彪雜함에 이른 것을 질책하고 이러한 투의 시라면 傳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잘못된 작시 습성으로 인해 謹出言, 收放心(正心)함에도 심히 해로울 것이라고 하면서, 藥圃에게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를 단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써 볼 때, 퇴계에게 있어서는 시를 단련하는 그 자체가¹³⁾ 시를 傳後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를 ‘正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방법으로 시를 단련하였다면, 시로써 자기의 뜻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니¹⁴⁾, 이러한 능력에 의해 쓰여진 시라면, 또한 글쓴이의 인격이 담겨진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무릇 詩는 工巧로우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취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있고, 사람은 우수하되 詩가 지극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과연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그 詩를 읽어 기뻐할 만하고 그 사람됨을 추구하여 사모할 만하면, 이러한 것은 과연 후세에 전할 만하지 않겠는가.¹⁵⁾

12) 『全書』 2 卷35, 書 「與鄭子精琢」 君惟以誇多鬪靡逞氣爭勝爲尙 言或至於放誕義或至於彪雜 一切不問而信口信筆 胡亂寫法 雖取快於一時 恐難傳於萬世 況以此筆事爲能而習熟不已 尤有妨於謹出言收放心之道 切宜戒之 仍取古今名家 著實加工而師效之 庶幾不至於墜墮也(中略) 古之能詩者 千鍛百鍊 非至恰好 不輕以詩人 故曰語不驚人死不休 此間有無限之語言.

13) 여기서 퇴계가 언급한 <詩의 鍛鍊>이란 개념은 어디까지나 <古今名家的 글을 效法한 鍛鍊>이기 때문에 技巧의인 측면에서 말하는 詩의 雕琢이나 修飾을 뜻하지는 않는다.

14) 退溪는 ‘辭(文辭)란 뜻을 通達해야 한다’고 하였다. ‘辭達意’를 위해 문장을 알아야 한다 하고, 그러한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古文眞寶』 後集의 문장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全書』 4, 卷5, 言行錄, 類編, 辭達意而已 然學者不可不解文章 若不解文章 須粗知文字 未能達意於言辭 古文後集有氣之文也 須讀取五六百遍 然後始見功 吾壯年只讀得數百餘遍 而操筆臨起 則若或起之 自然胸中流出矣)

15) 『全書』 2, 卷43, 跋, 「魚灌圃詩集跋」, 蓋有詩工而於人無取者 有人優而於詩未之者 若詩者果可以傳世乎 讀其詩而可喜 求其人而可慕 若是者果不足以傳世乎.

즉 시가 傳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사람과 시가 일치되어질 경우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한 實例로 寒暄堂(金宏弼)의 「路傍松」詩¹⁶⁾를 든 것이 있다. 퇴계는 이 시 가운데 ‘길 지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歲寒心事¹⁷⁾를 너와 함께 할 만한 이 그 몇이나 되리’라 한 句를 평하면서, ‘이 말은 참으로 맛이 있는 것으로, 정말 덕있는 사람의 말과 좋은 사람의 글은 사람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많지 않은 말 속에서도 사람을 감개시켜 마지 않는다.’¹⁸⁾고 하여 「路傍松」을 통해 寒暄堂이 路傍松같은 節士가 세상에 드뭇을 嘆했던 詩意가 바로 그 爲人(寒暄堂)과 잘 호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은 시의 형식면을 두고 推敲(精鍊의 일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기로 한다. 松巖(權好文)의 시의 병폐를 지적한 글이다.

詩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병폐가 적지 않다. 말을 길게 하고자 하였기에 支蔓하고 駁雜해졌으며, 韻을 채우고자 하였기에 억지로 끌고나가 지나치게 부연되었다. 用事한 것은 어떤 것은 적합하고 어떤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對句를 이룬 것도 어떤 것은 적합하고 어떤 것은 보잘 것이 없다. 많은 것을 힘써 駁雜함보다 어찌 말을 줄여 精當한 것만 하겠으며, 멀리 달리고자 하여 자주 넘어지는 것보다 어찌 법도를 따라 홀로 이르게 되는 것만 하겠느냐. 지난 번에 네가 지은 여러 작품을 보고, 병폐가 이러한 데 있음을 알고 심한 말로 일러 준 적이 있는데 어찌 살피지 않았느냐. 이 詩는 좋은 말도 많지만 이러한 것은 논하여 비유하지 않겠다. 다만 간간히 蔓辭贅句가 겹쳐서 다른 잘된 부분도 오히려 좋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가히 애석한 일이다. (중략) 만일 이러한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吾儒의 學問 길에서 심히 멀어질 뿐 아니라

16) 『全書』 4, 「退溪文集攷證」, 卷6, 書, 一路蒼髯任路塵 勞勞迎送往來賓 歲寒與汝同心事 經過人中見幾人.

17) 歲寒은 『論語』 「子罕」의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라한 데서 따온 말이다. 이는 다른 나무들이 추위를 못 견디고 일찍 凋落해 버리는데 대해, 松柏만은 그 추위를 최후까지 버틴다는 것을 말함이니, 松柏의 氣象이 그만큼 難境에도 굳세다는 것을 뜻한다.

18) 『全書』 2, 卷28, 書, 「答金惇敘」, 金先生詩意 謂經過許多人中 同歲寒心事者 能有幾人乎 此言真有味 真不誣 德人之言 吉人之士 不在多 而能令人感慨不歇也.

아래로는 場屋文字(科學文)도 이 수단으로는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¹⁹⁾

시 속의 지리박잡한 어언과 牽強附會한 韻 및 用事の 當·不當, 對句의 適·不適한 곳을 지적하면서, 詩가 務多駁雜하기 보다는 辭約精當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를 吾儒學問路脈의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본다면, 시의 務多駁雜과 驅而屢蹟한 것에 상대하여 쓰여진 辭約精當과 循軌獨至는 吾儒學問路脈에서 요구하는 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시가 推敲에 의해 가능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문장을 중심으로 正心論을 전개했던 부분을 살펴기로 한다. 인용문은 宋言愼(1542~1612, 자 寡尤, 號 壺峯)에게 답한 편지이다.

편지 가운데 미진한 바가 있기에 여기에 간략히 적는다. ‘疎誕’ 두 글자가 무슨 까닭인지 몰라 편지를 그대에게 돌려 보낸다. 처음에는 매우 괴이하게 여겼는데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로 ‘疎誕’이라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疎誕’과 近似한 뜻이 없지는 않은 듯하지만, 이를 험하게 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잡을 방도를 생각지 않는다면 온당치 않을 것이다. 무릇 지난 번에 그대의 뜻과 기상을 살펴보니 자못 ‘激昂軒輊’(격앙의 오르내림)함이 많았는데, ‘激昂軒輊’함은 원래 委靡頹塌(기운이 죽고 가라앉음)함 보다는 나은 바가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을 믿고 자부하여 나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矜豪縱肆한 데 이르러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傲物輕世하여 세상을 살아나 감에 무한한 병통이 될 것이다.²⁰⁾

19) 『全書』 3, 續集 卷6, 「與權章仲」 細看之 其病亦不少 言必欲長 故支蔓而駁雜 韻弼欲滿 故牽強而剩衍 用事或當或否 屬對或的或贅 與其務多而駁雜 孰若辭約而精當乎 與其長驅而屢蹟 孰若循軌而獨至乎 往年見所作論數篇 知弊病此 嘗苦口告之 其不見省也 此詩好於甚多 非論比 但被問問蔓辭 贅句壞累 他所以并好處亦不好 是爲可惜(中略)始此不改 非唯於吾儒學問路脈甚遠 亦恐文章家爐錘 亦不堪當得 非唯文章家 下至場屋文字 亦不可以此手段求之.

20) 『全書』 1, 卷13, 書, 「答宋寡尤別紙」 書中意有未盡 復略布於此 疎誕二字不知何故奉歸於左右 初甚怪之 及細看來論 雖不可謂實爲疎誕 然不無有近似者 恐不

宋言愼의 편지에 언급되어 있는 ‘疎誕’이란 문자가 퇴계에게 미진하게 느껴져, 받은 편지를 되돌리며 이를 바로 잡도록 요구한 내용이다.

퇴계는 宋言愼에게 뜻과 기상에 ‘激昂軒輊’함이 있어 글이 ‘疎誕’하게 되었다 하고, 이 ‘激昂軒輊’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害’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위에서 지적한 ‘격양현지’는 곧 性情의 中和狀態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퇴계는 宋言愼에게 이러한 기상이 방치될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 矜豪縱肆한데 이르고 法度를 도외시하는 傲物輕世에 이른다 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規戒를 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도학공부로서 이러한 기상을 고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뉘우침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긴절돈독히 此學에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폐습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疎誕’ 두 글자가 평소에 빌미를 만들어 준 바,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때문에 옛 사람들은 ‘격양현지’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이러한 뜻과 기상이 있으면 義理之學에 積功하여 血氣의 치우친 폐습을 없애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가히 숭상할 만한 점이다.²¹⁾

이와 같이 퇴계는 道學工夫로서 血氣의 치우친 폐습(激昂軒輊)을 고쳐나갈 때, 글의 ‘疎誕’함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이 역시 性情의 中和(正心)를 추구코자 한 正心論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奇’를 표현한 문장을 두고 正心論을 전개했던 다음 인용문을 보기로 한다. 인용문은 퇴계가 朴君의 遊山錄을 보고 거기에 표현된 ‘奇’

當以爲不害而不思矯揉之方也 大抵向見左右志氣 頗多激昂軒輊 激昂軒輊固勝於委靡頹塌 然苟恃此自負 而謂人之莫己若也 則必至於矜豪縱肆 不循軌度 傲物輕世 其行於世也 有無限病痛。

21) 同上, 悔吝而猶不知自反 又不肯遜志屈首 密切敦厚 加工於此學 則無以變化其一偏之弊習 此疎誕二字 所以作崇於平素而不可解也 是以古之君子 不以激昂軒輊爲貴 有此志氣而積功於義理之學 能消磨了血氣之偏弊者 斯爲可尚也已。

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이것을 金舜學(1524~1605 名 八元, 號 志山)와 편지로써 의론을 해 본 내용이다.

무릇 名山을 노닌 사람은 이 名山을 설명할 경우에 실로 ‘奇’를 주로 표현하지만, 그 ‘奇’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은 마땅한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늘 詭論을 즐겨 혹 事理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 형세란 반드시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이요 학문은 옆으로 흘러 이단이 되게 할 것이니 老佛의 무리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앤 뒤에라야 비로소 盡善하리라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²²⁾

윗 글에서 퇴계는 朴君의 遊山錄에 표현된 ‘奇’를 논하면서 ‘奇’ 자체를 부정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奇’를 인정하는 전제로서 ‘그 奇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은 마땅한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奇’가 詭論에 흘러 事理에 맞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또한 학문을 異端(老佛)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이러한 ‘奇’로는 盡善(도덕적 선의 추구 및 正心)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퇴계가 말한 ‘其奇也各有分劑 其言也各有攸當’은 곧 ‘正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장치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²³⁾ 퇴계

22) 『全書』 2, 卷35, 書「與金舜學」 夫遊名山者 其說名山者 其說固主於奇然其奇也各有分劑 其言也各有攸當 若每喜於詭論而或爲之強說 則其勢必至於心蕩而不返 學流而爲異 如莊釋之倫是也 故鄙意須兼此等盡去之然後 方爲盡善也 如何如何.

23) 이 같은 논리를 「答李剛而」에서도 볼 수 있다. 文字를 가지고 ‘奇’를 논한 부분이지만, 그 ‘奇’는 일단 退溪로부터 常格以外(奇格)의 특이한 묘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奇를 인정하는 전제로서 出奇處에서의 節度方略과 본받은 바의 내력(來歷可師法)이 있어야 함을 들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法도와 所從來가 없다면 호기가 발생함을 견제할 수 없고, 이 好奇로는 奇의 묘처가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節度方略’과 ‘來歷可師法’은 역시 ‘正心’을 이탈치 못하게 하는 규제장치를 뜻한다 하겠다. (『全書』 1, 卷21, 書, 「答李剛而」 大抵文字常格之外 自出機軸 如兵法之出其無窮 固是妙處 然其出奇處 亦須有節度方略 有來歷可師法 故可貴而不改 若無是數者 而過於好奇 則不

가 南冥(曹植)의 好奇함을 매우 못마땅히 생각하고²⁴⁾ 또한 남명이 의리에 未透한 점이 있다고 한 것은,²⁵⁾바로 이러한 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洪應吉(1515~1554, 仁祐의 字, 號 恥齋)의 「金剛山遊錄」에 序한 것을 보면, 文은 철저히 유가적 입장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제 이 유록은 얇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감에 모두 차례가 있다. 산에 대해서는 그 등성이의 산줄기를 분변했고, 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천과 支流를 살피었다. 이곳 저곳을 왕복하면서, 그물처럼 잇고 가지처럼 뻗어가 수백 번을 굽어 돌았다. 빠진 곳 없이 매우 깊고 먼 곳까지 다녔으되 마음이 권태롭지 않았고, 험난한 곳을 다녔으되 기운은 더욱 힘있었다. 오묘함을 기뻐하고 그윽함을 즐겼으되 玄虛에 떨어지지 않았고,奇怪함을 좋아하고 詭瑋함을 높였으되 荒誕에 가깝지 않았다.²⁶⁾

되게는 이 遊錄을 통해서 금강산의 산수경관을 마치 자신이 편력하며 欣賞한 것처럼 느껴가며 序를 써 가고 있다. 남의 遊錄을 보고 간접 체험한 것이지만 유람한 주인공을 연상하며 그 경관을 직접 피부로 느껴간 정도라면, 그 遊錄이 매우 흡족스러웠다는 말과 다름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洪應吉이 금강산의 기괴한 장관과 幽深한 境界를 遍覽하였으되 그것을 遊錄에 표출하면서 道家的인 玄虛나 荒誕不經을 담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敗者鮮矣 何可每每以是爲貴)

- 24) 『全書』 2, 卷43, 跋, 「書曹南冥遊頭流錄後」, 曹南冥遊頭流錄 觀其遊歷探討之外 隨事寓意 多感憤激昂之辭 使人凜凜 猶可想見其爲人(中略) 或以其尙奇好異 難要以中道爲疑者 噫 自古山林之士 類多如此 不如此 不足以爲南冥矣.
- 25) 『星湖僿說』, 卷9, 人事門, 「退溪南冥」, 黃錦溪上退溪 書論南冥義理未透 退溪答曰 此等人多是老莊爲崇 於吾學例不深邃 何怪其未透也 要當取其所長耳.
- 26) 『全書』 2, 卷42, 書,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今是錄也 自淺而造深從卑而陟高 皆有次第 於山必辨其脊脈 於水必究其源委 縱橫往復 羅絡條達 百折千回 無所遺闕 窮深極遠 而志不倦 歷險履艱而氣彌勳 悅奧妙耽幽閑 而不墮於玄虛 好奇尙詭瑋 而不隣於荒誕.

다음 퇴계의 選文趣向 속에 나타난 正心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는 『朱子大全』 중의 <書>를 중요시하여 그 부분을 간추려서 『朱子書節要』(14권 7책)를 편찬하였다.²⁷⁾ 그런데 門徒 중에서는 거기에 選取된 글을 두고, 회의를 표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門人 李仲久(1510~1575, 李湛의 字, 號 靜存齋)가 의문했던 것을 예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義理의 精深한 것과 事爲의 酬酌같은 것(選取된 <書>의 내용면을 두고 일컫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緊切한 것을 응당 우선적으로 취했어야 하는데, 그 중에는 더러 긴질치 않은 것도 수록되었다.’²⁸⁾는 것이었다. 李仲久가 이렇게 의문했던 것은 스승 퇴계의 正心論을 의식하였던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점을 퇴계가 李仲久의 의문을 답변해 주면서, 緊切치 않은 것도 중요시되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一偏之病’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여기에 (朱子書節要) 그러한 바가 있네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주장하려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병폐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릇 義理에도 精深處만 있고 유독 粗淺處는 없겠는가. 이들 몇 가지는 나의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것이니 정작 절실하게 여기어 우선해 두어야 할 것이네. 이를테면 남에게 관계되는 것, 사물에 관계되는 것 등을 나의 몸과 마음에 긴질치 않다 해서 빠뜨릴 수 있겠는가²⁹⁾

라 하여 우리에게 緊切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야 심

27) 節要라 한데서 시사되듯이, 退溪는 『朱子大全』의 <書>를 자신의 척도에 의해 그 내용을 取舍選擇하여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다. 그 <書>는 당시의 時賢, 師友, 門人, 子姪들과 書翰을 교환한 내용들이다. 거기에는 朱子의 사상, 학설, 인격등을 알 수 있게하는 내용들과 師弟間의 인정에 관한 것, 그리고 학문을 토론한 일 등이 담겨져 있다.

28) 『全書』 1, 卷10, 書, 「答李仲久」, 來諭云 義理之精深 事爲之酬酌 切於吾身與吾心者 所當先取 而其間或有不緊而見收云云.

29) 同上, 此固然矣 然而必欲盡如此說 恐未免又墮於一偏之病也 夫義理固有精深處 其獨無粗淺處乎 事爲固有緊酬酌 其無有閑酬酌乎 是數者其關於吾身與吾心者 固切當先矣 若在人與在物者 其以爲不切而可遺之乎.

신의 상태를 ‘一偏之病’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퇴계는 李仲久에게 閑酬酌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實例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그런 즉, 이 책(朱子書節要)에 選取해 넣은 것들에는 公이 편지에서 말
씀한 바, 응당 우선해 두어야 할 것들이 진실로 이미 충분히 많지마는,
간혹 피차 편지를 주고 받을 즈음에 있었던 인사말을 한 것, 평소의 情
懷를 말씀한 것, 山水를 遊玩한 일을 두고 말씀한 것, 時俗을 답답하게
여겨 말씀한 것 등 閑酬酌에 속할 그리 긴절치 않아 보이는 내용의 것
들도 더러 선취해서 같이 넣어 두었다. 이를 玩讀하고 吟味할 사람들로
하여금 先生(朱子)의 風貌를 心身安逸·優遊逸樂하는 즈음에 친히 뵈
듯 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침하고 談笑하는 가운데 친히 듣듯하게 하
자는 것이었다네. 이렇게 되면 有道者의 氣象을 그 風範神采間에서 체
득하게 되는 것이, 오로지 精深의 面에만 힘써서 긴절치 않아 보이는
내용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경우에 너무나도 홀져(德孤) 체득하는 바
가 없는 것보다 반드시 갇지않진 않을 것이네.³⁰⁾

윗 글에서 퇴계는 자신이 選取한 閑酬酌만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
니었다. 또한 閑酬酌만이 心身上의 ‘德孤’를 막아주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단지 閑酬酌을 끌어 온 것은 우리에게 精深處와 閑酬酌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 예로써 그는 ‘德孤’와 같
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精深處가 있는 곳에 閑酬酌이 있어
야 하고, 閑酬酌이 있는 곳에 精深處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의 選文의 趣向 역시도 결국 正心論과 같은 방향
에서 추구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鄭子中(1533~1576, 名 惟一, 號 文峯)이 퇴계의 爲文(創作)의 특
징을, ‘글을 지은 것은 六經에 근본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열하여 華와

30) 同上, 然則是書所取 如來諭所當先者 固已不勝其多矣 其或彼此往復之際 亦有道
寒暄 敘情素 玩水遊山 傷時悶俗等閑酬酌 似不切之語 間取而兼存之 使玩而味之
者 如親見先生於燕閑優逸之際 親聆音旨於營效談笑之餘 則其得有道者氣象於風
範神采間者 未必不更深於專務精深 不屑不緊者之德孤而無得也.

實을 겸하였고, 文과 質이 中을 얻어 雄渾하면서도 典雅하고 淸健하면서도 和平하였으니, 요컨대 그 귀결은 粹然히 <正>에서 나온 것이었다³¹⁾라 한 것은, ‘正心’을 추구한 퇴계의 창작론을 매우 단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2. ‘正心’과 感興

앞서 본 바대로 퇴계는 문학의 정심기능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 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고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정심의 방법면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원론적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정심의 방법면에 대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그 정심론이 퇴계시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正心과 詩(興)와의 관계를 통해 모색을 하려 한 것이다.

먼저 ‘正心’의 방법론부터 살피기로 한다. 그 방법문제는 心과 性情과의 관계를 밝혀 놓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 그 大概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理氣를 겸하고 성정을 통솔하는 것이 心이다. 性이 情이 될 즈음이 곧 一心の 幾微이며 여러 가지 변화의 요긴한 것이니, 선악은 여기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능히 敬을 가지는 데 專一하여 理와 欲의 분별에 어둡지 아니하고, 더욱 이에 삼가서 未發時에 存養의 功이 깊고 已發時에 省察의 습관이 익숙해져서 참되게 쌓고 오래 힘써 그치기를 아니하면 『書經』의 이른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應用的 心法을 다른 데서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기에서(持敬; 인용자 註) 얻을 수 있을 것이다.³²⁾

31) 『全書』 4, 卷1, 「言行通述」 鄭惟一撰, 爲文本諸六經 參之諸子 華實相兼 文質得中 雄渾典雅 淸健而和平 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

32) 『全書』 1, 卷7, 「進聖學十圖筭并圖」 兼理氣統性情者也 心 而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幾微 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味理欲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 存

윗 글의 主旨는 ‘敬’을 가지는 일로써 欲을 제거하고 理(天理)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또한 未發之性일 때, 나의 본성을 기르고(存心養性, 中), 已發之性일 때 성찰함으로써 인간본질인 性과 그의 발현인 情, 體(未發)와 用(已發)을 선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 선(性情之正, 正心)은 ‘敬’으로써 性情을 존양성찰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욕의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서, 마음이 항상 警覺狀態에 있으면서 부단한 자기성찰로써 자신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도덕적 완성을 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로써 성찰하여 人欲 즉, 私欲의 침입유혹을 배제하고, 자기의 본성 속에 갖추어 있는 天理가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곧 ‘敬’을 지키는 일이다.³³⁾ 이와 같이 性情을 바르게 하려면 ‘敬’을 지켜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放心’이 없도록 해야 한다.

程明道家(程顥)가 이르기를 자제들이 ‘온갖 것을 玩好하는 것은 心志를 잃게 하니 비록 글씨를 쓰는 일이라도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즉, 雜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藝에 노닐다’는 말은 孔子의 가르침에서 나왔으니 또한 오로지 금하여 끊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다만 거기에 탐닉하고 집착할 때 해가 됨을 염려하는 것이다. 朱子가 陳膚仲(朱子の 門人, 陳孔蹟)에게 이르기를 ‘가정의 일들이 온통 쌓여 있는 것을 공부하는 현장으로 여겨라’고 하였고 范伯崇(朱子の 門人, 名 念德)에게는 ‘시끄러운 官事 가운데서도 여가가 나면 마음을 수렴하고 성찰하라’고 하였던 것이니, 大本이 세워지고나면 세상일로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때에 따르고 일에 따라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세상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부하는 장소가 되지 아니할 곳이 없을 것이다.³⁴⁾

體應用心法 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33) 李相殷 「退溪의 學問과 思想」 『退溪學研究』 pp.64-65 참조

심이 物(雜藝)에 빠지게 되는 방심의 상태를 없애버린다면, 아무리 번잡한 家務 官事를 상대하더라도 이를 현명하게 적응해 갈 수 있고, 또한 모든 세상사가 나의 공부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한 데서, ‘求放心’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퇴계는 방심을心の害로 보았기 때문에 다음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를 짓거나 글을 쓰는 일, 혹은 산수를 遊賞하는 일 등도心の害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敬’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마음이 主宰(敬)하면 物은 物대로 존재하여 物이 마음에 해롭지 아니하고, 마음이 主宰하지 못하면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山水를 遊賞하는 일까지 程朱의 門에서 모두 경계한 것은 이런 까닭(心害:인용자 註)에서 일 것이니 가히 알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³⁵⁾

‘마음이 主宰하면 物은 物대로 존재하여 物이 心에害되지 않는다.’함은 感物者가 ‘敬’을 유지하여 物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心에害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퇴계는 程朱가 ‘敬’이 안된 상태에서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山水를 遊賞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일 등을 ‘경’을 유지하여 행함으로써 시나 글씨, 山水遊賞 등의 경지가 <眞境에 들게 됨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퇴계가 이제까지 ‘敬’(內的修養)을 중요시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 있었던 것이다.

내적 수양이 강조된 實例로써, 먼저 樂山水의 방법론적 문제를 다룬 다음 글을 주목해 보자.

-
- 34) 『全書』 1, 卷13, 書, 「答宋寡尤」: 明道云子弟凡百玩好 皆喪志 雖書字 亦不欲好之 則可知雜藝關心之爲不可 然游於藝 發於聖訓 亦非專禁絕也 慮耽著爲害耳 晦庵告陳庸仲 以家務叢委 爲用功實地 戒范伯崇以官事擾擾 暇時能收斂省察云云 則大本可立 則人事廢業 可知其不可惡也 苟能隨時隨事 不輟其工 則人事雖多 無非爲學之地也.
- 35) 『全書』 2, 卷16, 書, 「答鄭子中」: 心能主宰 則物格付物 物不能爲心害 心不能主宰 則作詩寫字 遊山玩水 程朱之門 皆以爲戒者 爲此故也 亦不可不知也.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고 한 것은 성인의 말씀인데, 이것은 山이 仁하고 물이 智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람과 山水가 원래 性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仁者는 山과 유사하므로 山을 좋아하고 智者는 물과 類似하므로 물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다. 이른바 유사하다고 한 것은 다만 仁者, 智者의 氣象과 意思를 가리켜서 말한 것일 뿐이다. 朱子의 『論語集註』를 보더라도 이 두 구절의 아래에 ‘似’자로써 주석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래의 글에 動하고 靜하다고 한 가르침은 實例로써 말한 것이고, 즐거움과 壽한다고 한 뜻은 效驗으로서 말한 것이니, 모두 仁·智의 本然의 이치를 참되게 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성인의 뜻을 생각컨대, 성인이 어찌 仁과 智의 이치가 미묘한 것을 사람들이 쉽게 깨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 여기서 때론 그 기상과 의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때로는 실제와 效驗을 가리켜서 반복형용한 것일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상징을 통해서 그 실체를 구하게 하는 데 준칙과 모범의 극치가 될 뿐이며, 산과 물에 나아가 仁과 智를 구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컨대 두가지 좋아함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仁者·智者의 기상과 의사를 찾아야 하고, 仁者·智者의 기상과 의사를 찾으려면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내 마음에 돌이켜보고 그 실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 내마음에 仁과 智의 실체가 속에 가득차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함을 절실히 추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좋아함을 갖게 될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퇴계의 산수감상법은 ‘樂山樂水’의 방법론과 일치되고 있다. 퇴계의 ‘樂山樂水’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이해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36) 『全書』 2, 卷37, 書, 「答權章仲」 樂山樂水聖人之言 非謂山爲仁而水爲智也 亦非謂人與山水本一性也 但曰 仁者類乎山 故樂山 智者類乎水 故樂水所謂類者 特指仁智人氣象意思而云爾 觀朱子集註 兩下有似字以釋之 可見其意 故其下文動靜之訓 亦以體段而言 樂水之義 亦以效驗而言 皆非眞論仁智本然之理也 故吾恐聖人之意 豈不以仁智理微妙 人未易曉 故於此或指其氣象意思 或指其體段效驗而反覆形容之 欲人因可象而求其實 以爲指準模範之極耳 非欲其就山水而求仁智也 故吾以爲欲知二樂之旨 當求仁智者之氣象意思 欲求仁智者之氣象意思 亦何以他求哉 反諸吾心 而得其實而已 苟吾心有仁智智實 充諸中而暢於外 則樂山樂水不待切切然求 而自有其樂矣.

것이다. 즉 ‘智者樂水, 仁者樂山’은 智者 仁者の 性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사람과 山水의 다름이 엄연하듯 사람과 山水의 동질성을 뜻함이 아니라 는 것이다. 그러므로 ‘智者樂水, 仁者樂山’이란 그 자체가 仁·智의 본연의 것일 수 없고, 다만 실체면에서 智者는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효능면에서는 智者는 樂하고 인자는 壽한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仁·智의 본연을 진정하게 추구하려 한다면, 일부러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智者·仁者の 기상과 성격을 터득해야 하며, 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仁과 智를 자기내면에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자연히 나의 내면의 仁과 智가 밖으로 흘러 나와 일부러 樂山水하지 않더라도 樂山水의 道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진정한 山水遊賞은 곧 내적 수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杜甫의 詩句(「戲題王宰畫山水歌」라는 詩의 ‘能事不受相促迫’이라 한 句)를 評釋한 곳을 보면 내적 수양의 중요성이 더욱 구체화 되었음을 보게 된다.

무릇 사람이 일에 능하면 마음에 터득된 것이 손으로 나타난다. 정신을 온전히 하고 지킴을 굳게 하여 外物에 의해 흔들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妙境에 들 수 있을 것이니, 況次 사람이 일을 빨리 하고자 하여 재촉을 받아서 되랴. 사람이 재촉을 받는다면 먼저 그 마음을 지킴에 실패할 것이니 어찌 묘한 경지에 나아가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윗글에서 ‘열흘에 물 한 줄기를 그리고 닷새 동안에 돌 하나를 그린다.’³⁷⁾라 한 것은 곧 마음에 재촉받지 않음을 뜻한다.³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外物에 흔들리는 바가 없으면 화가의 마음이 妙境에 들어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듯, 마음을 재촉받지 않

37) 杜甫의 「戲題王宰畫山水歌」라는 詩에서 ‘十日一水 五日一石’이라한 句를 가리킨다.

38) 『全書』 4, 卷5, 類編, 言行錄: 蓋以人於能事 得於心而應於手 神全而守固 不爲 外物所動 而後乃入於妙 況受人之欲速 而相催促乎 受人之迫促 則先失其心守 何能事之妙造 故云云 上文十日一水 五日一石 卽其不受促迫之事也.

고 ‘열흘에 물줄기 하나를 그리고 닷새 동안에 돌 하나’를 그리는 정성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 짓는 일에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곧 작자의 마음이 外物에 흔들리는 바가 없을 때 (放心이 없을 때, 正心)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性情을 存省하여 시를 창작토록 한 경우를 들어 보자

시가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르침이니 興이 일고 情이 일면 시를 禁하기 어렵도다.³⁹⁾

시란 感物을 통해서 興이 일고 情이 일면 저절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지만, 感物의 단계에서 일어난 興·情의 質은 感物者(詩 창작상의 주체)의 存養省察의 興否에 따라 正한 것과 邪한 것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니, 시의 질도 이에 따라 正·邪로 구분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시가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르친다.’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가 性情을 存省한 연후에 感物에서 일어나는 興·情을 매우 바람직한 감흥으로 보고 이를 시로써 표현해야 한다고 한 진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보건대 이 이론은 곧 正心論에 바탕한 퇴계의 시창작론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창작론이 邵康節의 <清夜吟>이란 시를 평석한 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볼 수 있다.

보내준 「清夜吟」의 意思에 대한 그대(良齋 李德弘)의 생각은 대개 납득이 가지만, 내 생각으로는 無欲을 깨달은 사람만이 清明高遠한 心懷로 한가로히 光風霽月이 나타나는 때를 만나면, 자연히 景과 意가 융회하여 천인합일을 이루게 됨으로써 興趣가 超妙해져 潔淨精微 從容灑落한 기상을 갖게 될 것이니, 이것은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끝없는 즐거움의 경지가 될 것이다. 康節의 「清夜吟」에 대해 云云한 것은 다만 이러한 의사일 것이다.⁴⁰⁾

39) 『全書』 1, 卷3, 詩, 「吟詩」;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

40) 『全書』 2, 卷362, 書, 「答李宏仲」 示諭清夜吟意思 大概得之 但愚恐只是無欲自得之人 清明高遠之懷 閒遇著光風霽月之時 自然景與意會 天人合一 興趣超妙

「清夜吟」은 無欲을 자득한 사람이 지은 바일 것이라 하여, 시의 기상(興趣)을 ‘潔淨精微’, ‘從容灑落’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性情을 存省한 연후(無欲自得)에 나온 興(詩)이 곧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끝없는 즐거움의 경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無欲을 자득함으로써 ‘清明高遠’한 마음을 갖게 되고 ‘清明高遠’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潔淨精微’, ‘從容灑落’한 기상의 超妙한 흥취가 그로부터 발하여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邵康節의 시를 평한 곳에서도 퇴계는 性情存省에 의한 感物으로써 일어나는 興·情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니, 그 평의 준거가 그의 시창작론과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선(正心)이란 ‘敬’으로써 性情의 存省工夫를 가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것인데, 퇴계는 이를 위해 항상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遏人欲 存天理’할 것을 역설한 것으로 정리되어 질 수 있다.

앞에서 持敬의 방법으로 방심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을 살펴보았듯이, ‘求放心’을 한다면 心은 物로부터 害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퇴계는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山水를 遊賞하는 일 등을 敬을 유지하여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이는 敬을 유지해서 행할 때 그 경지가 眞境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곧 ‘正心’이 됨으로써 그러한 일 등을 행함에 放心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正心’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 그러므로 퇴계가 性情을 存省한 연후에 感物해서 일어난 興·情을 시로 표현하여야만 그릇된 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결국은 그 이유가 방심을 우려한 데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말을 실제 창작물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이러한 창작론에 의해 산출되어진 시가 곧 ‘正心’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된다.

潔淨精微 從容灑落底氣象 言所難狀 樂亦無涯 康節云云 只此意耳.

Ⅲ. 內的 修養과 自然詩

1. ‘賞自然’의 修養의 意味와 美的 價値

퇴계는 山水를 유상하는 일도 敬을 유지함으로써 그 경지가 眞境에 들 수 있게 한다고 보았는데, 그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放心’을 막아 心이 物로부터 害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賞自然을 통해 추구하려 한 바가 곧 ‘正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은 南時甫(南彦經의 字)에게 心疾의 치유법을 말해 준 다음의 글을 통해서 그 단면이 잘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세간의 궁통득실과 영육이해를 일체 관심 밖에 두어 마음의 누비는 바가 없게 하며, 이 마음을 힘써 터득하게 된다면 걱정하는 바가 무릇 10분의 5~7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酬酢을 적게하고 嗜慾을 절제하여 마음을 비우고, 한가롭고도 편안하게 날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圖書花草를 구경하거나 溪山魚鳥 같은 것을 즐겨한다면, 진실로 <뜻이 즐거움고 情에 맞을 것이니> 항상 접하기를 싫어하지 않아서, 心氣를 항상 順境에 머물게 하고 율화가 치밀어 성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⁴¹⁾

윗 글은 南時甫가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보내 온 편지에 답서한 것인데 南時甫에게 心疾의 치유법을 다음의 두 가지로 말하여 준 것이다. 첫째, 세속적인 일체를 도외시하여 마음을 虛閑恬愉하게 해야 할 것과, 둘째, 圖書花草, 溪山魚鳥 같은 것에 대한 玩樂을 통해 뜻이 즐거움고 정에 맞게 해야함을 들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적 측면은 성리학의 수양법과 통하는 것이다. 특히 둘째의 경우는 ‘賞自然’함으로써 <娛意適情>케 됨을 시사한 것이니 이는 ‘賞自然’의 수양적 측면을 대변한 좋은

41) 『全書』 1, 卷14, 書, 「答南時甫別幅」;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不以累於靈臺 既辨得此心 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 如是而凡日用之間 小酬酢節嗜慾 虛閑恬愉以消遣 至如圖書花草之玩 溪山魚鳥之樂 苟可以娛意適情者 不厭其常接 使心氣常在順境中 無拂亂以生嗔恚 是爲要法.

용례라 하겠다.

‘賞自然’의 수양적 의미는 퇴계가 산수를 遊賞하면서

산수가 아름다워 그윽히 굽이쳐 도는 곳을 만날 적마다, 혹은 술병을 가지고 가거나 혹은 벗들과 더불어 함께 노닐며 읊조리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돌아오나니, 이 모두 心胸을 활짝 열고 정신을 트이게 하니 性情을 기르는 일이다.⁴²⁾

고 한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陶山記』에서 或者가 퇴계에게 外物(山水自然)없이도 顏淵의 陋巷, 原憲의 甕牖같은 도가 있었음을 들어, 眞樂은 外物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 추구가 가능하다고 한데 대하여, 퇴계는 반론을 하면서, 孔子의 ‘與點之歎’과 朱子の ‘卒歲之願’에 각각 ‘沂水’와 ‘蘆峯’이란 山水가 매체로 작용했음을 예거하여, 그같은 外物이 당시의 顏淵과 原憲에게 환경적 여건으로 더 제공되어졌더라면 그들의 즐거워한 바가 더욱 높은 경지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하면서 外物이 眞樂을 추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하였던 것이다.⁴³⁾ 그렇다면 이 眞樂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윗 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산수자연을 매체로 하여 일어난 흥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眞樂이란 앞에서 이른바 圖書花草, 溪山魚鳥 같은 산수자연의 恒接함을 통해 <娛意適情>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眞樂이란 역시 <娛意適情>과 마찬가지로 수양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42) 『全書』 5, 卷2, 「李子粹語」; 每遇佳山麗水幽閒絕處 則或携壺獨往 命侶俱遊 徜徉嘯咏 終日而歸 皆所以開豁心胸 疏淪精神 資養性情之一事.

43) 『全書』 1, 卷3, 「陶山雜詠并記」, 或者(인용자 주) 曰古人之樂得之心 而不假於外物 夫顏淵之陋巷原憲之甕牖 何有於山水 故凡有待於外物者 皆非眞樂也 退溪(인용자 주) 曰不然 彼顏原之所處者 特其適然 而能安之爲貴爾使斯人而遇斯境 則其爲樂豈不有深於吾徒者乎 故孔孟之於山水未嘗不亟稱而深喻之 若信如吾子之言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嶺乎 是必有其故矣 或人唯而退.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賞自然’은 우리의 성정을 함양케하는 수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퇴계는 왜 ‘賞自然’을 ‘敬’을 유지해서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을까? 이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賞自然’의 수양적 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퇴계가 ‘賞自然’을 통하여 수양을 함으로써(正心) 결국 ‘賞自然’의 경지가 眞境에 이르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계에게 있어서 ‘賞自然’이란 眞樂을 추구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계가 됨은 물론, ‘상자연’에 의한 感興(眞樂)을 시로 표현하여야 한다고 한 창작론도 역시 ‘賞自然’의 수양적 의미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賞自然’에 의한 감흥, 즉 시는 일단 性情得正의 차원에서 미의식이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른바 性情得正이란 도덕적 선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그 개념은 일단 윤리적 가치로도 대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 윤리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결국 시적 정서가 윤리적 가치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때 미적 가치는 곧 윤리적 가치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며 이에 복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념이 미의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⁴⁴⁾

林熒澤 教授는 이를 바탕으로 사림파의 미의식의 특징을 세 각도에서 ① 기교주의를 반대하고 ② 현실을 멀리하며 물에 집착하지 않고 ③ 人欲을 씻어 淸澄한 정신을 찾으려는 데서 형성되었다⁴⁵⁾고 논하여, 사림파 문학의 미의식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미의식이 퇴계의 시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남을 보게 된다.

예컨대 洪萬宗이 우리 나라의 諸賢 18인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시가 性情의 바름을 얻은 연후에 지어진 것이라 하고 퇴계시를 그 가운데서 파악한 것을 본다면⁴⁶⁾, 퇴계의 시가 性情을 得正한 작품임을 알 수 있

44) 林熒澤, 「16세기 士林派의 文學意識」, p.45,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45) 同上書, pp.45-48.

46) 『洪萬宗全集』 下, 「詩評補遺」 下, 詩는 性情을 淸은 것이다. 성정의 바름을 얻

다. 洪萬宗은 이어서 그들의 시가 ‘作於天然’함을 통해 또한 性情의 바름을 얻은 것을 볼 수 있다⁴⁷⁾고 하였다. 이로 볼때 ‘作於天然’이란 性情을 得正함으로써 얻은 시의 天然한 경지임을 알 수 있다. 星湖(李翼)가 퇴계의 「泛濯纓潭」詩⁴⁸⁾를 평하면서 ‘이 시아말로 義理의 眞境을 말한 것이며, 떡줄과 자귀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쟁그랑거리서 월만한 것이며, 가벼운 바람이 물을 스치어 물결이 생기는 격이며, 羚羊이 뿔을 나무가지에 걸고 자는 것처럼 흔적조차 없으니⁴⁹⁾ 藝苑에 놓아 辯論是非한들 무엇이 부족한 바 있으랴⁵⁰⁾고 한 것은, 퇴계의 시에 작위의 흔적이 조금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명증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시에 나타난 脫俗의 形象을 보기로 한다. 陶山 天淵臺에서 달을 翫賞하며 읊은 시에

한 점 티끌도 가슴 속에 끼었다고 생각하면,	始覺襟懷累一塵
밤마다 새워지는 이 臺의 달을 보아라.	此臺看月夜來新
온통 쇠락하고 청진한 저 경지를,	都將灑落清真境

으면 성정을 펴서 詩가 된 것은 詩 삼백편의 流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먼저 성정을 바르게 다스린 연후에 詩를 말했던 것이다. 우리 동방의 諸賢은 이제 한두 분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지만 드러나게 기릴만한 사람을 말해둔다.(중략) 이하의 부분은 安 裕, 鄭夢周,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金安國, 李彥迪, 徐敬德, 趙 昱, 成守琛, 曹 植, 成 運, 李 滉, 奇大升, 李 珥, 成 渾, 鄭 述 등 18인을 거론하고 그들의 詩 한 수 씩을 예거하고 있음: 詩詠性情 性情之得其正則發爲詩者 亦三百編之流耳 是以君子必先理性情之正 然後可與言詩 我東諸賢 今不可一二勝記 姑以表表可稱者言之(中略).

47) 同上書. 아. 이들 諸賢의 詩는 作語가 天然스럽고 각각 妙處를 다하였으니 詩에서 <性情의 바름(性情之正)>을 얻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 噫 此等諸賢之詩 作於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

48) 『全書』 1, 卷3, 詩, 原詩題目은 「四月旣望濯纓泛月令교安道德弘以明月清風韻得明字」이다.

49) 羚羊(소 科에 속한 염소 비슷한 羊인데 深山에 살며 큰 뿔이 달렸다함)이 다른 동물로부터 危害를 막기 위해 잠잘 때 뿔을 나무가지에 건다는 것(보호색)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다.(詩의 不作爲性을 비유한 것임)

50) 『星湖僿說』 卷30, 詩文門 『退溪先生詩』 卽無論義理眞境不煩繩削 鏗鏘可誦 輕颺度水生瀾 羚羊掛角無痕 置之於藝苑雌黃 又何所歎.

속된 인연 끊어버린 幽人에게 맡겼다네. 分付幽人絕俗因⁵¹⁾

달을 ‘灑落清真境’으로 형상화시켜 달 자체에다 超俗의 의미를 붙이고, 달을 絶俗한 幽人에게 맡긴다 함은 곧 陶山 天淵臺에서 작자 자신의 翫月하는 형상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陶山山水는 이제 평범한 산수자연으로서가 아니라 高踏的인 脫俗境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2句에서 ‘밤마다 새워지는 이 臺의 달을 보면’, ‘가슴 속에 끼어 있는 한 점 俗塵’까지도 씻겨지리라 보았던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미의식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곧 性情得正의 차원에서 미적 가치가 논의되어짐으로써, 윤리적 가치가 우위에서 미적 가치의 토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미적 가치는 또한 윤리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⁵²⁾

2. 山水詩

42세 때 災傷御史로 江原道 平昌郡을 지나면서 지은 시에서 ‘吏隱’을 희구한 것이라든가⁵³⁾, 또 ‘吏隱’의 심경을 이같이 젊은 시절부터 가졌던 것으로 보아, 우리는 퇴계의 山水愛가 남달랐음을 알게 된다.

43세 때에 致仕를 결심한 이후로⁵⁴⁾ 줄곧 宦路에 나아가지 않았던 翫수가 잦았던 것을 보더라도⁵⁵⁾ 그의 歸去來는 그 자신의 자연취향과

51) 『全書』 1, 卷3, 詩, 「天淵翫月」.

52) 註 44와 같은 책 p.48 참조.

53) 『全書』 2, 別集 卷1, 詩, 「平昌郡東軒有角字韻詩無暇續紹二十五日途中用其韻紀所見」. 이 詩에서 ‘不能休官便歸去 於茲吏隱猶堪樂’이라 함(吏隱은 字典에 ‘부득이 벼슬하고 있으나 본 마음은 隱居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볼때 吏隱은 吏와 隱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면서도 그 비중이 隱에 더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54) 『全書』 4, 卷1, 「言行通述」; 先生本素宦情 又見時事有大機關 自癸卯始決退休之志.

55) 43세 이후의 年譜에 특히 辭退의 翫수가 잦은 것을 볼 수 있다.

더 어울리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가령 45세 때에 校書館校理兼承文院校理를 임명받았을 때, 이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 경내를 돌아보며 여러 곳에서 느낀 바를 한 수씩의 시로 남겼던 것⁵⁶⁾을 보더라도, 그의 짙은 자연취향에의 면모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서 彌川長潭을 찾아 읊은 시에서 퇴계는

생각에 잠겼세라 어릴 때 이 곳에서 고기 낚던 일.	長憶童時釣此間
삼십년 긴 세월을 풍진 속에 저버렸네.	卅年風月負塵寰
나야 溪山의 옛 모습을 알아보련만,	我來識得溪山面
늙은 이내 모습을 溪山이야 어찌 알리.	未必溪山識老顏 ⁵⁷⁾

라 하여 그곳에서 어릴 때 고기 낚던 동심을 回憶하고, 전원에서의 짙은 감회를 느끼며, 고향산수가 이곳을 찾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였으니 고향산수에 대한 그리움은 극치에 달하였다고 본다.

특히 퇴계의 최후의 定居地였던 陶山은 山水樂을 형성하게 한 대표적인 생활 공간이었다.

아,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서 질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없으나, 돌이켜 보건대 山林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나 중년에 망녕되이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엎는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거의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죽을 뻔하였다. 그 뒤에 나이는 더욱 늙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行身은 더욱 곤란하여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樊籠을 벗어나 전원에서 몸을 던지니, 앞에서 이른 바 山林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즉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老境을 편히할 곳은, 여기를 버리고 장차 어느 곳을 구하겠는가.⁵⁸⁾

56) 『全書』 1, 卷1, 詩, 「獨遊孤山至月明潭因并水循山而下晚抵退溪每得勝境卽賦一絕凡九首」(孤山, 日洞, 月明潭, 寒栗潭, 景巖, 彌川長潭, 白雲洞, 丹沙壁, 川沙村)

57) 『全書』 1, 卷1, 詩, 「彌川長潭」

중년기의 벼슬살이로 인해 산림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했던 자신을 두고 ‘망녕되이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엎는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거의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을 뻔하였다.’고 한 것을 본다면, 산림에 묻혀 사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벼슬살이를 벗어나 陶山에 은거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고 도산산수를 찾아 山林之樂을 구가하며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을 여간 다행스러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山林의 樂은 ‘賞自然’의 수양적 의미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산수자연을 대함으로써 촉발되어진 ‘흥’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산수자연을 통해 ‘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여러 고을을 돌아다녀 보면 가는 곳마다 이 山(鶴駕山)이 선듯 눈에 띄어, 매양 가슴을 일렁이게 하고 눈길을 닿게 하는 흥취를 견디지 못하였다.’⁵⁹⁾고 하였고, 「陶山記」에서는

때로 몸이 가볍고 心神이 새맑아서, 우주를 굽어 보고 우러러보아 감개가 생기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뜰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壇에 올라 節友社를 찾기도 하고,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한다. 또는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해져서 뜻가는 대로 이리저리 노닐다가, 눈에 닿으면 興이 일고 景을 만나면 興趣가 이루어짐에 興을 다한 뒤에야 돌아온다.⁶⁰⁾

58) 『全書』 1, 卷3, 「陶山雜詠并記」; 嗚呼余之不幸晚生遐裔 樸陋無聞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 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59) 『全書』 1, 卷4, 詩, 「偶吟二絕」의 小註에 ‘平生環行諸境 到處山輒入望 每不勝其盪胸決眚之興’이라 한 부분이 있다.

60) 『全書』 1, 卷3, 「陶山雜詠并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携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壽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여기서 鶴駕山의 경관이 선듯 눈에 들어와 ‘가슴을 일렁이게 하고 눈 길을 달게 하는 데서’ 일어난 감흥이나 「陶山記」에서 서당주변의 景이 눈에 닿을 때마다 혹은 景을 만날 때마다 일어난 감흥은 모두 物(景)에서 촉발되어진 것⁶¹⁾임을 알 수 있다. 「陶山雜詠」은 위의 「陶山記」에서 말한 흥을 5言 26絶, 7言 18絶로 붙여낸 것이다. 이렇게 산수자연으로부터 느껴진 흥을 시로 붙여낸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山水詩가 될 것이다. 그러나 흥의 성격은 모두 같을 수 없으므로 흥을 보는 관점에 따라 山水詩는 세분되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 장에서는 山水詩를 흥의 성격에 따라 興趣의 詩, 閑靜의 詩, ‘言學’의 詩로 분류해 보았다.

1) 興趣의 詩

흥이란 <正心과 感興>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감흥에 의해 일어난 정감일체를 일컫는 것이지만 흥의 총체 가운데는 ‘흥겹다’는 뜻의 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퇴계가 新巖 山水를 홀로 遊賞하면서 지었다는 「三月初八日獨遊新巖六絶」 중 그 한 수를 보기로 하자.

산꽃에 햇빛 비쳐 눈부시게 찬란한데,	日照山花絢眼明
시냇빛 아득아득 버들은 파릇파릇.	溪光漠漠柳青青
병든 몸 나귀 타고 어드메로 가는 건가	蹇驢馱病向何處
泉石이 사람 불러 흥이 멎지를 않네.	泉石招人興未停 ⁶²⁾

61) 盪胸決背의 興趣, 觸目發興, 遇景成趣 등은 모두 ‘因物起興’의 현상들이다. 奇高峯이 朱子の 武夷權歌를 評釋하면서 ‘朱子の 九曲十章은 因物起興으로 胸中之趣를 묘사함으로써 그 뜻을 붙인 바와 그 말의 펼침이 진실로 모두 清高和厚하고 沖澹灑落하여 곧 欲沂氣象과 더불어 그 快活함이 같다고 여겨진다.’고 한 데서 ‘因物起興’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高峯全集』, 卷1, 高峯退溪往復書, 別紙, 武夷權歌和韻; 朱子於九曲十章 因物起興 以寫胸中之趣 而其意之所寓其言之所宜 固皆清高和厚 沖澹灑落 直與欲沂氣象 同其快活矣.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p.117 재인용, 李敏弘 教授는 奇高峯의 견해에 나타난 因物起興을 ‘物(武夷九曲)에 인연하여 일어난 <興>을 노래한 것이라 하고, <清高和厚>와 <沖澹灑落>은 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士林派文學의 研究』, p.118.)

이와 같이 新巖山水를 흥겨운 마음으로 ‘병든 몸 나귀 타고 어드메로 가는 건가. 泉石이 사람 불러 興이 멎지를 않는다.’로 표현한 것을 본다면, 이 흥은 단순한 감흥이기보다는 ‘흥겨웁다’는 뜻의 흥이 될 것이다. 「煙林」이란 시를 보도록 하자.

을어도 그 흥을 다하지 못하고,	吟不盡興
그림을 그린다해도 그 변화를 다하지 못하네.	畫不盡變
짙은 봄이면 김이 펼쳐지고,	春濃繡錯
늦가을이면 노을이 빛나네.	秋老霞絢

겹겹이 둘러 싸인 원근의 형세	遠近勢周遭
아득아득 냇빛 서린 숲일러라.	漠漠迷烟樹
고개들어 바라보니 즐거워라.	延望足玩心
아침 저녁 변하는 저 수많은 모습들.	變態多朝暮 ⁶³⁾

煙林은 시인에게 무한한 감흥을 일으키게 했던 것 같다. 그것은 봄날의 김을 펼친 듯한 煙林과 가을녘의 노을 빛나는 煙林을, 시로도 그 흥을 못다 펴고, 그림으로도 그 변화의 妙를 못다 그린다고 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本詩에서도 煙林의 변화 모습을 보고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煙林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어 보인 동작은 煙林이 그만큼 시인의 관심을 끌게 했다는 것을 뜻함이니, 그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煙林으로부터 무한한 변화의 妙(興)를 느꼈던 시인의 심경을 읽어낼 수 있다.

윗 시와 같은 「陶山雜詠」 중의 「長郊」란 시에서는,

한 벌이 넓고 넓어	效原膺膺
마을은 아득아득,	籬落依依
별을 이고 나갔다가	戴星而出

62) 『全書』 1, 卷4, 詩.

63) 『全書』 1, 卷3, 詩.

달을 띠고 돌아오네.

帶月而歸

더운 날엔 푸른 물결 넘실대고,
가을철엔 누른 구름 가득하여라.
해 저물 땐 갈가마귀 바라보이고,
바람결엔 牧笛소리 들리누나.

災天彌翠浪
商節滿黃雲
薄春歸鴉望
遙風牧笛聞⁶⁴⁾

넓고 넓은 長郊 들판과 들판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촌락, 그리고 농부가 일터를 향해 새벽길을 재촉하는 모습과 그들의 밤늦게 귀가하는 모습들이 그림같이 묘사되고 있다. 長郊들판을 이렇게 그려냄으로써 시인은 촌락의 평화스런 정경과 농부들의 소박한 삶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켰다고 본다.

本詩에서 여름철의 파란 보리물결로부터 풍요의 즐거움을 느꼈던 것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홍의 성격이 이와 같이 신선하고도 풍요로웠기에 長郊들판은 시인에게 薄暮에도 갈가마귀 날으는 한가로움과 목동의 피리소리가 있는 평화스런 곳으로 비쳐졌다고 본다. 樂山水 자체의 흥을 노래한 작품은 그 자체 내에 즐거움다는 뜻을 담고 있으니, 樂山水의 흥취가 집약되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싶다.

창 아래 샘소리 金石 풍악을 연주하는 듯, 窓下聽泉金石奏
臺 앞의 솟는 물결 눈 구름 쏟듯하네. 臺前觀漲雪雲崩
물을 좋아하여 智에만 치우쳤다 말을 마오. 莫言樂水偏於智
층층의 푸른 산이 여기저기 널려 있네. 更有青山面面層⁶⁵⁾

窓 앞의 샘소리를 음률로 듣고, 臺 앞의 솟는 물결을 눈·구름 쏟아지는 정경으로 보았던 것은 곧 시인의 미적 정서가 그 샘소리와 물결에 착색되어진 것을 말한다. 시인은 그 샘소리와 물결만을 감상하는 데 그

64) 『全書』 1, 卷3, 詩.

65) 『全書』 1, 卷3, 詩, 「偶題」

치질 앓고 ‘층층의 푸른 산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하여 시야에 드는 여러 산들을 두루 감상하면서 樂山의 興을 곁들였으니 이 시는 결국 樂山水의 흥을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樂山水와 관련한 작품을 한 수 더 들기로 한다. 「溪上偶吟」이란 시이다.

낚시대 들고 돌에 앉아 한가로이 시 읊노라니,	把釣閒吟坐石磯
지는 해 숲밖에 걸린 줄도 몰랐네.	不知林表掛斜暉
돌아오니 온 방안은 물처럼 해 맑은데,	歸來一室清如水
몸엔 반쯤이나 젖은 옷을 입고 있네.	身上猶看半濕衣 ⁶⁶⁾

溪上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한가로이 시를 읊노라 낚시문 줄 조차 몰랐으니, 溪上山水에서의 흥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3句의 ‘돌아오자 온 방안이 물처럼 맑았다.’ 함은 山水遊賞의 흥으로 말미암아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새맑은 기분을 느끼게끔 하였다는 것인데, 結句의 ‘입은 옷이 반이나 젖은 것을 본다.’는 데서 그 흥이 극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흥이 낚시질하는 그 자체에 뜻이 있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溪上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한가로이 시를 읊노라 낚시문 줄 조차 몰랐다.’는 것은, 곧 溪上山水를 賞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몰아일체의 흥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음, 경쾌한 흥을 담은 작품을 보기로 한다. 「夕霽登臺」란 시이다.

하늘가로 가는 구름 봉우리도 수많은 데,	天末歸雲千萬峯
푸른 물 푸른 산은 저녁 노을 붉었구료.	碧波青嶂夕陽紅
지팡이 끌고 서둘러 고대에 올라 앉아,	携筇急向高臺上
만리라, 긴 바람에 옷깃 열고 웃어보네.	一笑開襟萬里風 ⁶⁷⁾

66) 『全書』 1, 卷3, 詩.

67) 『全書』 1, 卷3, 詩

눈 앞에 펼쳐지는 하늘가의 떠도는 구름과 수많은 산봉우리, 그리고 저녁놀이 붉어 있는 푸른 산과 푸른 물을 바라보고 흥을 느꼈던 시인이 그 산하를 조망하기 위해 臺를 서둘러 올랐던 것과, 또한 臺에서 가슴을 활짝 열고 萬里風을 향하여 一笑를 보냈던 광경 등은 그의 浩然한 氣象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憑家飲歸詠溪月』에서 역시,

달밟고 돌아올 적, 온 하늘 서리 가득하고,	踏月歸時霜滿天
衣巾에 남은 국화 향기 아직도 피어나네.	衣巾餘馥菊花筵
이 가운데 유달리 마음 깨우는 곳 있으니,	箇中別有醒心處
水樂石 울리어라, 太古의 거문고 줄.	水樂鏘鏘太古絃 ⁶⁸⁾

퇴계가 조카(憑)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달빛과 ‘霜滿天’을 대하고서 문득 자신에게 남아 있는 酒宴席의 菊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분이 그만큼 상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흥 속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를 水樂石의 音律로 美感하며, 그 소리를 太古의 音響美로 감상하였으니, 귀로길의 심경이 얼마나 흥겨웠던가를 잘 알 수가 있다.

귀로길의 흥겨움을 다룬 작품 한 수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작품은 퇴계가 臨江寺에 있는 龕巖(李賢輔)을 배알한 후, 龕巖으로부터 仙風道骨의 풍모를 느끼고, 귀로길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일어난 감회를 석양녘에 붙여 읊어본 「暮歸馬上」이란 시다.

봄바람 강에 불고 눈이 처음 개었는데,	春風吹水雪初晴
신선을 뵈고감에 들절이 맑았어라.	侯謁仙公野寺清
갈 때도 즐거웠고 올 때도 즐거우니,	去自欣然來自得
석양녘 비긴 길에 말굽 소리 가벼워라.	夕陽斜路馬蹄輕 ⁶⁹⁾

68) 『全書』 1, 卷2, 詩

69) 『全書』 1, 卷2, 詩.

시의 분위기가 仙公·野寺 등으로 淨潔한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는데, 이 시에는 이러한 시어들을 구사함으로써 농암의 仙風이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암을 배알하고 사양길을 돌아오면서 ‘갈 때도 즐거웠고 올 때도 즐거웠다.’고 한 데서 시인의 심경이 더욱 즐거웠음을 알 수 있거니와, 結句의 ‘석양녘 경사길에 말굽 소리 가볍구료.’라 한 데서는 흥겨움이 더 한층 고조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泛濯纓潭」시는 星湖로부터 매우 칭송되었던 작품인데 濯纓潭泛月の 흥취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푸른 물 달빛 아래 밤기운 청명한데,	水月蒼蒼夜氣清
조각배 바람 따라 맑은 강을 오른다.	風吹一葉泝空明
포주박 잔의 하얀 술은 은잔에 반짝이고,	匏尊白酒鱗銀酌
桂棹의 흐르는 빛은 玉橫(별)을 모은다.	桂棹流光掣玉橫
采石江의 미친 일은 得意가 아니거니 ⁷⁰⁾	采石顛狂非得意
落星湖 ⁷¹⁾ 의 읊조림은 가장 情을 끄네.	落星占弄最關情
모르괘라. 通泉百歲 뒤에 ⁷²⁾	不知百歲通泉後
누 다시 正聲을 이을런지.	更有何人續正聲 ⁷³⁾

이 시는 작자가 ■·安道·德弘 등과 함께 달 밝은 四月 既望日을 맞아 片舟를 타고 濯纓潭을 泛月하면서 느꼈던 풍류를 매우 담박한 흥취로 그려낸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풍류를 “朱子가 「泛月落星湖」詩에서 蘇後湖(宋, 豊川

70) 李白이 采石江을 지나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했다는 고사(『全書』 4, 『退溪學文集考證』)

71) 이 호수는 팽려호(彭蠡湖) 서북쪽에 있는 것으로 湖中에 자그마한 山이 있다고 하는데, 전하기로는 별이 호수에 떨어져서 化成한 것이라 함.(同上)

72) 唐 郭元振이 通泉尉가 되었을 때, 少保 薛稷이 通泉에 가서 함께 놀았던 적이 있다. 杜甫의 詩(觀薛公書畫)에 이르기를 ‘이번 걸음 壯觀이요, 郭과 薛은 모두 才賢이었네. 모르괘라. 千年 뒤에 누 다시금 通泉에 갈 수 있으리’ (此行輒壯觀 郭薛俱才賢 不知千載後 誰復來通泉)라 하였음(同上) 이로 보건대 通泉은 그 경관이 빼어났던 것 같다.

73) 『全書』 1, 卷3, 詩「四月既望濯纓泛月令窩安道德弘以明月清風分韻得明字」

人, 이름 庠)의 ‘길이(長) 烟波를 읊조리며 明月을 弄한다.’라 한 詩句를 끌어와 後湖의 遺烈을 深嘆했던 것”⁷⁴⁾과 견주고, 또 “주자가 일찍이 傳景仁(宋, 晉江人, 이름 伯壽)·袁機仲(?)·梁文叔(宋, 邵武人, 이름 瑑)·吳茂實(邵武人, 이름 莢) 등과 함께 武夷九曲에 배를 띄우고 서로 唱酬할 때 읊은 시에서 ‘百歲 뒤에 뉘 다시금 通泉에 올 수 있으리’라 했던 것”⁷⁵⁾과 견준으로써, 곧 濯纓潭의 풍류를 주자의 落星湖, 武夷九曲 風流와 같은 것으로 比肩하고 있다.

2) 閑靜의 詩

<賞自然의 修養의 意味>에서 우리는 퇴계가 心疾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첫째, 世間の 窮通得失과 一切의 榮辱利害 따위를 도외시하여 마음을 虛閒恬愉하게 해야 할 것과, 둘째, 圖書花草나 溪山魚鳥 같은 류의 玩樂함을 통해 心을 <娛意適情>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계의 시는 모두가 심성의 수양문제와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閑靜을 추구한 시는, 곧 현실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虛閒恬愉’를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되는 작품들이라 생각된다.

먼저「石潭曲」을 보기로 한다.

내닫는 물이 돌여울로 내려가니,	奔流下石灘
깊은 소의 해맑은 물 차고도 푸르네.	一泓湛寒碧
벼랑은 깎을 펼친 듯 칠쭉꽃 만발하고,	躑躅爛錦厓
뉘시들은 이끼로 아롱졌구나.	莓苔斑釣石
흰 갈매기는 나와 같이 한가한 듯,	白鷗似我閒
피라미는 이 즐거움을 아는 듯,	鯈魚知爾樂
어느 때 조각배를 마련하여,	何時攤小艇
긴 노래 부르며 밝은 달을 읊조릴고.	長歌弄明月 ⁷⁶⁾

74) 同上, 윗 시의 原註, 晦庵先生 泛月落星湖時 學蘇後湖長占烟波弄明月之句 冠之詩首 而深嘆後湖之遺烈.

75) 同上, 又先生嘗與傳景仁袁機仲梁文叔吳茂實 泛舟九曲 相與唱酬 先生詩有 百歲誰復來通泉之句.

76) 『全書』 1, 卷1, 詩, 「戲作七臺三曲詩」 中の 「石湖潭」

「石潭曲」은 三曲(石潭曲, 川沙曲, 丹砂曲) 중의 하나이며, 曲이란 ‘물이 산을 감돌아 구비를 이룬 것’⁷⁷⁾을 말한다.

작자는 石潭의 차고도 푸른 물구비가 깊은 沼를 이룬 광경과 그 주위 환경을 묘사하면서, 沼를 접한 斷涯의 철쭉꽃이 집을 펼친 듯하다 하고, 낙시들엔 과란 이끼가 아롱졌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것은 石潭曲의 閒雅한 풍취가 시인의 섬세한 정감에 의해 상세히 소묘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후반부에서는 石潭曲 하늘 위를 날으는 갈매기와 石潭曲 속을 자유로이 노니는 피라미를 통해서 한가로움을 느끼며, 그러한 즐거움을 石潭曲 泛月을 통하여 펴보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凌雲臺를 찾아서 읊었던 시를 보도록 하자.

숲뚝고 골짜들어 烟霞를 찾아가니,	穿林入谷訪烟霞
들국화 향기 곳곳마다 풍겨오네.	處處吹香野菊花
문득 붉은 벼랑이 푸른 물에 닿은 것을 보노라니,	忽見丹崖臨碧水
깊은 사랑스러움에 집을 이곳으로 옮기고 지고.	愛深從此欲移家 ⁷⁸⁾

깊은 숲 속의 烟霞와 곳곳에서 풍겨오는 들국화 향기가 작자의 시각과 청각을 매우 끈다. 이러한 景이 작자의 情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3, 4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작자가 산수자연 속의 凌雲臺를 尋訪하여 凌雲臺(景)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집을 이곳으로 옮기고 싶어했던’ 데서 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작자의 산수애가 보다 진하게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왜 퇴계는 이토록 산수를 사랑하였던 것일까? 그가 「奉酬龔巖李先生靈芝精舍詩序」에서 ‘龔巖이 以老棄官하고 歸田園하여 영지산에 精舍를 지은 것은 頤神養性之所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⁷⁹⁾고 한 것을 본다

77) 『全書』 1, 卷1, 詩, 「戲作七臺三曲詩」 중의 「石潭曲」

78) 『全書』 1, 卷1, 詩, 「戲作七臺三曲詩」의 原註, 水繞山成曲者 凡三.

79) 『陶山全書』, 1, 卷1, 詩, 去年秋 吾鄉李參判公 以老棄官 以去愛是庵 就而重新

면, 그의 산수생활은 심성을 닦는 장소로 이해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위의 시는 아래와 같다.

精舎가 흰구름 위로 높이 솟았는데,	精廬高架白雲嶺
煉丹하는 葛稚川(晉 葛弘의 字)이 노니는 듯,	藥竈逍遙葛稚川
행여나 높은 臺를 杜妄 ⁸⁰)이라 하지마라.	莫把高臺名杜妄
俗客들은 풍문 듣고 절로 말채찍 돌리리라.	聞風俗駕自回鞭 ⁸¹)

영자산의 정사를 仙界로 묘사하고, 그 속에 거처하는 농암을 葛弘같은 신선으로 비견하여, 그의 清高한 氣稟을 세속을 초월한 기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清涼山을 遊賞하면서 그 소감을 적은 「白雲菴記」에 역시 ‘내 일찍이 遊山하는 몇 사람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숲을 찾아 滿月菴을 거쳐, 걸어 암자에 올라 水石이 영롱함을 보고, 形神이 灑脫해져 窓戶에서 문득 杳然히 신선세계에 든 듯하였다. 무릇 이런 지경에 이른다면 비로소 遊山의 妙를 얻은 것이라 할 것이다.’⁸²)라고 한 것을 본다면, 遊山을 통한 超脫境이 육체와 정신을 수양케 하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퇴계는 李之蕃이 棄官하고 島潭에 은거하였을 때, 그 곳에 은거한 그의 삶을 자신의 단양살이 때의 풍류와 비겨 칭송하면서, 李之蕃의 풍류를 隱士의 仙境處로 부각시켰음⁸³)을 볼 수 있거니와, 그의 시에서 山

之 名曰靈芝精舎 以爲願神養性之所.

80) 『古文眞寶』 「北山移文」에 ‘망녕된 말고삐를 교외 어귀에서 막는다.’(杜妄轡於郊端)라 한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원래 劉宋의 周顒같은 變節者가 北山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부터 그의 말고삐를 교외 어귀에서 막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俗客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으로 쓰여졌다.

81) 『全書』 1, 卷1, 詩, 「奉酬龔巖李先生靈芝精舎詩」

82) 『陶山全書』 四, 遺集, 外集, 卷7 記. 「白雲菴記」 余嘗與遊山數人 策杖穿林 由萬月菴 縱步而上 第 見水石玲瓏 窓戶翛然 而形神灑脫 杳然有瑤局丹竈之想焉 蓋至是 始得遊山之妙矣.

水를 仙界로 형상시킨 곳은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내가 단풍철에 가지 못한 것을 하늘도 의심하였는지, 天嫌吾未趁丹楓
 짐짓 산꽃을 보내 늦도록 꽃피웠네. 故遣山花發晚紅
 마치 무지개 다리(虹橋)에다 채색 장막을 펴놓은 듯, 正似虹橋連綵幕
 못 신선들 武夷山에 잔치하는 듯 싶구나. 群仙酣宴武夷中⁸⁴⁾

꽃으로 찬란한 紫蓋峯을 虹橋의 채색 장막과 武夷山 神仙들의 잔치하는 것과 같은 것⁸⁵⁾으로 비유하여 紫蓋峯을 仙界로 형상하고 있다.

國望峯을 眺望하면서 읊은 시에서 역시

남녘을 바라보니 山河가 그 얼마더뇨 南望山河許幾疆
 단지 바다하늘 멀리 구름 낮은 모양을 보겠구료. 雲低祇覺海天長
 원컨대 鶴駕山 神仙 불러내어 願從鶴駕招仙子
 淸都를 날아 올라 옥황상제를 뵈었으면. 飛上淸都謁玉皇⁸⁶⁾

이라 하여, 먼저 國望峯 남쪽 眺望을 통하여 산천의 무한한 경계에 深嘆을 보냈으며, 다음으로는 國望峯 아래 펼쳐진 구름바다를 감상하면서 문득 仙界를 연상하였음인지 ‘鶴駕山 신선 불러내어 淸都를 날아올라 옥황상제를 뵈었으면’이라 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山居生活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愛閒」이란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83) 『全書』 1, 卷2, 詩, 「寄李而盛之蕃」, 我曾爲吏隱丹丘 幾挾飛仙夢裏遊 聞說島潭 今有主 想應多我舊風流 (原註: 時以司評 棄官來隱于島潭)

84) 『全書』 1, 卷1, 詩, 「紫蓋峯」

85) 武夷山 傳說是 武夷君과 列仙들이 幔亭峯頂에서 연회를 베풀 때, 鄉人을 불러 오기 위하여 무지개 다리(虹橋)를 놓았던 일과, 연회가 끝난 뒤 鄉人들이 모두 단을 내려가자 虹橋가 바람에 날려 끊어졌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李敏弘, 『士林派 文學의 研究』 p.67 참조)

86) 『全書』 1, 卷1, 詩, 「國望峯」

숲 속 띠집, 돌틈엔 샘물 흐르고	林間茅屋石間泉
한가로이 가을바람을 즐기나니 맑고도 고요하다.	閒愛秋風灑靜便
易經의 伏羲 文王 한 두 卦를 관찰하고,	易玩羲文一兩卦
陶靖節 邵康節의 詩 몇 편을 읊조린다.	詩吟陶邵五三篇
동산의 들사슴은 깃든 구름속에 자고,	園容野鹿栖雲宿
창을 마주한 물새는 별아래 조누나.	窓對沙禽向日眠
몸만 한가하라 마음도 편안하니,	不獨身閒心亦泰
병 많기로 남 앞선다한들 무엇이 관계되랴.	任從多病在人先 ⁸⁷⁾

샘물 흐르는 林間에 茅屋을 구축하고, 새맑은 가을 바람을 음미하며 고요히 伏羲 文王의 易을 관찰하기도 하고, 한가로이 陶淵明 邵康節의 詩를 吟賞하는 작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더욱이 거처 주위의 동산에 들사슴들이, 깃든 구름 속에 자고 있는 모습과 창 앞의 물새들이 별 아래 즐고 있는 모습 등은, 그만큼 주위환경이 한가롭고도 평화스럽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閒靜함을 통해 心性을 기르고 形神의 平安함을 느끼는 가운데 多病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44세 때(1544년) 9월, 上護軍에 遞職되면서 휴가를 내어 귀향하였다가 滯鄉中에 「病中有客談關東山水慨然遠想」이란 시를 지은데서 역시,

깊숙한 곳에 집을 세었으니 저자 소리 멀고,	賃屋深坊遠市聲
늦가을의 단아한 모습 맑고도 사랑스럽네.	端居秋末愛新晴
삼나무 줄긴 바람앞에 우뚝하고,	風前挺挺杉翹翰
아름다운 국화꽃은 서리 속에 곱게 피었네.	霜下鮮鮮菊秀英
閒職으로 한가하니 病없는 듯,	散地身閒如不病
흉년이라 텅빈 집은 眞淸(참으로 맑음)인 듯,	凶年家空似眞淸
요즈음 그대 놀던 仙境이 꿈에도 그리워,	邇來夢想仙遊地
어느 날 벼슬 버리고 홀로 멀리 가볼고.	何日投簪獨遠想 ⁸⁸⁾

87) 『全書』 1, 卷3, 詩, 「和中間居十二詠」중의 한 首.

88) 『全書』 1, 卷2, 詩.

거처를 人世와 동떨어진 곳에 정함으로써 작자의 심중은 맑은 가을 하늘을 대하듯, 가을 바람 속에 짙어있는 삼나무와 서리 속에 곱게 핀 국화 등은 그에게 가을의 청량감 같은 것을 주었던 듯 싶다. 이러한 심경을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자. 즉 그것은 5, 6句에서 보인 바대로 작자가 閒職을 말음으로써 한가로움을 느낀 나머지 身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흉년으로 공간이 비었으므로 그것을 ‘眞淸’으로 볼 수 있었던 데서 잘 드러난다 하겠다. 7, 8句 역시, 어떤 객이 찾아와서 병중인 퇴계에게 關東山水를 이야기해 주자, 그것을 듣고 그 산수를 동경한 나머지 벼슬을 그만두고자 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니 모두 심신의 수양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었다고 보겠다. 이처럼 그는 산수를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는 산수가 幽人의 居處로 형성되어 지는 곳이 많다.

다음의 시(郭景靜城主求題山水畫幅)를 보자. 이 시는 城主 郭景靜(郭越의 字)이 퇴계에게 山水畫幅을 가져와서, 거기에 시를 써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그 산수화를 보고 읊은 것이다.

여러 산은 어지러이 띠같이 얽혀 있고, 물은 맑고 깊은데,	亂山縈帶水淸深
그 속에 초라한 띠집이 대숲으로 둘러 있네.	中有衡茅鎖行林
생각컨대 幽人이 높다란 베개에 누워,	想見幽人高枕臥
세상의 榮과 辱엔 관심이 없네 그러.	世間榮辱不關心 ⁸⁹⁾

작자는 화폭의 산수 가운데 겹겹이 둘러쌓인 산 모양과 깊은 계곡으로부터 흘러 내리는 물의 모양을 선명히 묘사하고 있고, 이 溪山가운데 幽人의 居所를 보고 세상영욕 일체를 초탈한 幽人의 高風을 상상하였다.

초탈을 형상한 작품을 한번 더 살펴보자. 「聽江」이란 시이다.

89) 『全書』 1, 卷3, 詩.

앞 시내는 고요히 흘러가는데, 前溪寂寥過
 먼 곳의 강물소리가 오히려 들려오네. 遠江還有聲
 世人은 箏笛 소리만 들을 뿐, 世人箏笛耳
 뉘 이 고요 속의 소리를 알랴. 誰參靜裏聽⁹⁰⁾

앞 시냇물 소리가 조용하고 遠江의 물소리가 들린다함은 그만큼 주변 산수의 환경이 靜寂하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시인은 이 정적속을 흐르는 물소리를 두고 ‘世人은 箏笛 소리만 들을 뿐, 어느 누가 이 고요속의 소리를 들으랴’하여, 靜 가운데서 세속을 벗어난 정취를 느꼈던 것이다. 다음의 「巖栖讀啓蒙示諸君」을 살펴보자.

칠십 평생 산에 살아도 더욱 산이 사랑스러워, 七十居山更愛山
 하늘 이치와 萬象의 변화 모습을 靜 가운데 살펴 보노라. 天心易象靜中看
 온 땅에 가득한 바람 달을⁹¹⁾ 한가히 관심 두노라니, 一川風月須閑管
 세상만사 티끌은 함부로 간여하지 않는다. 萬事塵埃莫浪干⁹²⁾

1·2句는 퇴계가 도산 은거를 통해서 天理의 流行함과 만물의 변화하는 이치(非可視의)를 깨닫고자 가시적인 萬象, 즉 도산산수를 靜가운데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3·4句는 1·2句에서 관찰한 현상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의 산수자연을 감상하는 장면이다. 그는 陶山山水 가운데서 ‘온 땅에 가득한 바람 달을’ 모름지기 한가로운 마음으로 음미하며, 塵世의 온갖 일들이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一川風月須閑管’은 일체의 속진을 떨어버린 채, 자연과 일체가 된 것을 뜻함과 동시에 고도의 수양된 경지를 뜻한다고 할

90) 『全書』 1, 卷5, 詩, 「金愼仲挹清亭十二詠」 중의 한 首

91) 王甦 教授는 『退溪詩學』에서 張湘의 『詩詞曲語辭匯釋』(臺灣, 中華書局, 1973)을 참고하여 ‘一川’을 ‘온 땅에(滿地)’라고 해석하였는데, 그 뜻이 詩意와 잘 호응된다고 본다.(『退溪詩學』 p.91 참조)

92) 『全書』 1, 卷5, 詩.

것이다.

3) ‘言學’의 詩

퇴계는 「陶山十二曲跋」에서 「陶山十二曲」의 前六曲을 ‘言志’라 하고, 後六曲을 ‘言學’이라 하였다.⁹³⁾ 여기서 우리가 『書經』 「舜典」의 ‘詩言志’라 한 것을 상기하여 본다면, 퇴계가 말한 ‘言學’은 마땅히 시를 범칭하는 ‘詩言志’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는 「陶山十二曲」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言志’외에도 ‘言學’이란 명칭을 따로 부여하였으니, ‘言學’을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0세 때 兎溪에 寒棲庵을 구축하고서 학문에 정진하려 했던 심경을 「和陶集移居韻」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홀로 한 잔 술을 들고, 한가로이 陶·韋의 詩를 읊조린다. 숲속 시냇가를 소요하노라니, 트인 마음 즐거웁도다. 옛 글은 진실로 맛있건만, 병 많으니 깊은 사색 두려웁네. 질惡을 미워함은 그 냄새를 분히 여김이며, 질善을 사모함은 때 늦을까 슬퍼지네. 시내소린 밤낮으로 들리고 산빛은 예나 이제 다름 없도다. 무엇으로 내마음 위로할까 옛 성현의 말씀은 날 속이지 않는데.	獨酌一杯酒 閒詠陶韋詩 逍遙林澗中 曠然心樂之 古書誠有味 多病畏沈思 疾惡憤遺臭 慕善嗟後時 溪聲日夜流 山色古今茲 何以慰吾心 聖言不我欺 ⁹⁴⁾
---	---

兎溪에 茅屋(寒棲庵)을 구축하고 陶淵明·韋應物의 시를 읊조리며 주변 산수를 거니는 그의 마음 속에는 밝음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성현을 배워 도학에 전심하려 한 퇴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93) 『全書』 2, 卷43, 跋 「陶山十二曲跋」, 嘗略倣李歌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94) 『全書』 1, 卷1, 詩, 「和陶集移居韻二首」中 第二首

그는 老病으로 학문을 깊게하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부단한 研學과 求道에 정진할 것을 晝夜不息 흐르는 溪水와 萬古靑靑의 山水에 比擬하여 읊고 있는 것이다. 한서암을 철거하여 小堂을 溪北에 옮겨 짓고(溪上書堂) 거기서 읊었다⁹⁵⁾는 「清明溪上書堂」을 보자.

마음이 한 말로도 통하여 道가 東으로 갔지만,⁹⁶⁾ 心通一語道猶東
뜻 다르다면 귀먹이에게 듣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利欲은 오늘날 바다로 강물 쏟듯 한데,
功名은 예로부터 허공에 지나는 새인 것을.
해마다 백성들은 곤궁해도 호소할 데 없고,
백성들은 情마저 제각기 다르도다.
한스러운 저 風光은 고개 넘는 햇별이요,
말없는 봄빛은, 시냇가 숲에 가득하다.
병들자 차츰 책 보기도 줄어들고,
시름겨울 땀 술 금하기 어려워라.
옛 어진이를 배워 허물 깊고 삼가하리니,
내 평생 길이 朱子를 생각하련다.

志異何殊聽借龔
利欲只今河決海
功名從古鳥過空
年年民俗困無告
箇箇人情嫌不同
有恨風光催嶺日
無言春色滿溪楓
病來稍減書癡絕
愁處難禁酒聖中
補過希前垂至戒
令人長憶紫陽翁⁹⁷⁾

퇴계는 道不在의 현실을 龔者에 비유하였다. 그러니 이 시에서 龔者는 한마디 말로도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鄭玄과 정반대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퇴계는 이 道不在의 현실을 龔者和 같은 어두운 현실로 개탄하면서 말하기를, ‘세태는 강물 쏟듯 利欲으로 들끓는다.’하였고 ‘사람들은 헛된 공명을 다룬다.’하였다. 게다가 백성들은 해마다 곤궁함을 면치 못하는 실정인데도 현실이 그러하니 그 실상이 방치되어 민심마저

95) 「清明溪上書堂」詩의 原註, 撤寒樓移小堂於溪北次老杜韻

96) 鄭玄이 馬融의 門下에서 3년을 공부하였는데, 하루는 馬融이 그와 얘기를 나누어 보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馬融은 하직인사를 하고 돌아가기를 청하는 그를 두고 감탄하기를, ‘우리 道가 東으로 간다’고 했다 한다.(『全書』 4, 「退溪文集考證」)

97) 『全書』 1, 卷2, 詩.

澆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개탄한 것을 광채없는 嶺日과 말문없는 봄빛으로 표현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현실을 개탄만 한 것으로 이 시를 종결지운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네 구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는 道不在의 現實을 심각히 고뇌하면서 마침내 ‘옛 어진이를 배워 허물 겁고 삼가하며, 내 평생 길이 朱子를 생각하련다.’ 하였으니, 이 어두운 현실을 학문을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는 학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그의 학문열은 곧 현실후퇴를 뜻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바물려고 한데 그 뜻이 있었다고 보겠다.

다음은 산수자연을 도학적 사고로 관념했던 작품들을 보도록 한다.

아래의 시는 「林居十五詠」 중의 「觀物」이다.

수 많은 저 物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가	芸芸庶物從何有
아득한 저 근원은 텅빈 것 아니로세.	漠漠源頭不是處
前賢의 興感處를 알려한다면,	欲識前賢興感處
庭草와 盆魚를 살펴보기 바란다.	請看庭草與盆魚 ⁹⁸⁾

퇴계는 程明道(程顥)가 만물을 사색하기 위해, 書窓 앞뜰의 무성한 풀조차도 그대로 두어 造物의 生意를 관찰하려 했던 것과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조그만 연못에 넣어 기르면서 萬物自得의 妙를 깨달았던 것을⁹⁹⁾ 상기하면서 그로부터 그 근원이 <虛>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이 근원이란 곧 萬物化生의 총체원리인 太極(理)을 두고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만물에 이 태극이 품부되어짐으로써 곧 만물은 造化의 流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퇴계는 이 造化의 流行함을 깨닫는 것을 程明道의 <興感處>라 하였으니, 이 흥은 단순한 감

98) 『全書』 1, 卷3, 詩.

99) 『全書』 4, 「退溪文集攷證」, 卷三 詩, 「觀物」詩의 ‘庭草’, ‘盆魚’에 대한 고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明道書窓前 草茂覆砌 或勸之艾 明道曰欲常見造物生意 又置盆池畜小魚數尾曰欲觀萬物自得意.

상과 敍景을 말함이 아니라 현상에 내재한 理를 깨닫는 순간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 보건대, 퇴계는 우주의 현상계에 선재하는 理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자연시도 단순히 현상자체만을 읊조린 것이 아니라 현상에 先在하는 우주의 眞有인 理, 즉 대자연의 이법을 깨닫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溪堂偶興」을 보자.

사방의 산 기슭은 붉은 깃을 펼치었고	四麓唯紅綿
양쪽 숲은 푸르름을 둘렀네.	雙林是碧羅
어찌 알았으리. 이 순박한 곳에,	豈知淳朴處
化工의 자랑을 입을 줄이야.	還被化工誇 ¹⁰⁰⁾

시인은 溪堂의 사방 산기슭에 붉은 깃을 깔아놓은 듯 피어있는 꽃들과 양쪽 산기슭의 푸르른 숲을 관찰하면서 造化翁의 무궁한 솜씨를 느꼈다. 이렇게 그는 꽃이 붉게 피고 숲이 푸르게 된 所以然之故를 하나의 미로 감각하며 물물마다 자연의 이치가 유행되고 있음을 관조했다.

「步自溪上躡山至書堂」에서는 이러한 意象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꽃핀 산언덕엔 봄이 더욱 고요하고,	花發巖崖春寂寂
새우는 시내숲엔 물이 졸졸 흐른다.	鳥鳴澗樹水潺潺
우연히 산 뒤에서 冠童들을 데리고,	偶從山後携童冠
한가로이 산앞에 이르러 考槃을 묻는다.	閒到山前問考槃 ¹⁰¹⁾

「言行錄」에서 이 시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보면, ‘德弘이 문기를 이 시에는 沂上의 즐거움, 즉 日用的 뜻뜻함과 위 아래의 조화가 함께 흘

100) 『全書』 1, 卷2, 詩.

101) 『全書』 1, 卷3, 詩.

러 제각기 마땅한 바를 얻은 기쁨의 妙가 있는 듯 합니다.’하였더니, 선생은 ‘비록 그러한 뜻이 없진 않으나 추측하여 말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하였다¹⁰²⁾고 되어 있다.

퇴계는 자신의 시를 曾點의 浴沂의 氣象에다 견준 良齋의 말을 듣고 ‘비록 그러한 뜻이 없지는 않지만 추측하여 말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함으로써 거기에 浴沂의 氣象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시에 대해 遜謝함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良齋가 말한 이 시의 沂上之樂을 한 번 훑어보자. 시인은 巖崖에 피어 있는 꽃을 보고, 또 시냇가 숲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으며 위 아래에 造化가 流行함을 관찰하였고, 造化가 流行하는 제마다의 景物을 통해서 자연의미를 감득한 것이다. 특히 巖崖에 피어있는 꽃에서 봄이 더욱 고요하고, 시냇가 숲에서 우는 새소리를 통하여 물이 더욱 졸졸 흐르는 것으로 청각되었던 것은 봄날의 산수 분위기가 그 만큼 閒靜하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세속의 혼탁함과 전혀 대조적인 것이다. 시인이 3·4句에서 曾點의 浴沂氣象을 연상하며 은거의 뜻을 붙여본 것은 그 이유가 이러한 데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퇴계는 「觀瀾軒」이란 시에서,

浩浩洋洋 흘러가는 저 물결 그 이치 어떻게	浩浩洋洋理若何
이와 같단 탄식을 孔子님도 일찍이 말씀하셨네.	如斯曾發聖咨嗟
다행히 道體를 이로써 볼 수 있으니,	幸然道體因茲見
잠시라도 공부를 사이뜨게 말아다오.	莫使工夫間斷多 ¹⁰³⁾

浩浩洋洋히 흘러가는 물(道用)을 통하여 물이 흘러가게 되는 所以然之故(道體)를 깨달으며, 우리도 그 물의 속성(道用, 現象)처럼 부단한

102) 『全書』 4, 「言行錄」, 卷3, 樂山水, 德弘問詩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也 先生曰雖略有此意思 推言之太極高耳.

103) 『全書』 1, 卷3, 詩, 「陶山雜詠十八絶(七言)」, 中 한 首

研學(道用)을 통하여 학문의 도(道體)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퇴계가 道用(屬性, 現象)을 관찰하여 道體(현상의 이치)를 파악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도가의 논리를 부정하는 다음의 「觀魚石」을 보면, 상술한 관찰법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고기 안단 莊子 惠子 논리 너무 지나쳐서,	知魚莊惠論超然
子思의 술개 난단 그 말과는 같지 않네.	不似沂公說對鳶
지금 사람 이 이치를 알려한다면,	此理今人如會得
함께 와서 이 天淵臺 구경하길 사양마오.	莫辭來共玩天淵 ¹⁰⁴⁾

먼저 윗 시를 살펴보기 전에 제 1 句와 연관된 『莊子』 「秋水篇」을 보기로 한다.

莊子が 惠子와 함께 濠梁위를 걸었다. 莊子が 말하기를 ‘피라미가 조용히 나와 놀고 있으니 이것은 저 물고기의 즐거움일 것이다.’하니 惠子が 말하기를, ‘그대가 물고기가 아닐진대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는가?’ 하였다. 莊子が 말하기를 ‘그대가 내가 아닐진대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함을 알리오?’ 하였다. 惠子が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아니니 진실로 그대를 알지 못한다. 그대도 진실로 고기가 아니니 그대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¹⁰⁵⁾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莊子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함은 惠子が 말한대로 莊子が 곧 물고기가 아닐진대 알 수 없는 경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노닐고 있는 것은 그 속성이 그러한 것이지 물고기 스스로가 즐거움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장자는 끝까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한 논리를 펴나

104) 『全書』 1, 卷4, 詩.

105) 『莊子』 「秋水篇」, 莊子與惠子 遊於濠梁之上 莊子曰 魚儻出遊從容 是魚樂也 惠子曰子非魚 安知魚之樂 莊子曰子非我 安知我不知魚之樂 惠子曰我非子 固不知子矣 子固非魚也 子之不知魚之樂 全矣.

갔으니 그의 주장은 결국 사람의 알 수 없는 경지를 안다한 결과가 되어 버린 셈이었다. 그러므로 莊子의 경지는 곧 초인간적·초경험적 세계를 뜻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퇴계가 윗 시에서 ‘고기 안단 莊子·惠子 논리 너무 지나치다.’한 이 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퇴계는 장자의 논리가 유가에서 이른바, 道의 流行함을 속성대로 관찰하는 방법(率性之謂道)과 다르다 하고, 이 유가의 논리를 강조하려는 뜻에서 天淵臺를 ‘鳶飛戾天’의 天과 ‘魚躍于淵’의 淵과 관련시켜, ‘率性’을 관찰하는 장소로 형상화시켰던 것이다.

IV. 結 言

이상에서 서술한 것을 이제 그 요점을 추려, 몇 條의 기록으로 결론을 대신해 둔다.

(一) 퇴계는 문학의 효용면을 가리켜서 ‘문학을 하는 일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문학의 正心作用(심성도야 성정순화)에 치중해서 한 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는 문학의 중요성을 ‘正心’기능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시나 문장이 이 ‘正心’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그가 시나 문장 등의 병치를 지적하면서 병치의 소재를 ‘正心’에서 벗어난 문장 표현에다 두고 이들을 고쳐야 한다고 한 데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二) 퇴계는 ‘正心’을 벗어난 시와 문장의 표현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提示하였다. 첫째, 古今名家의 작품을 학습하여 시를 단련할 것과, 둘째, 義理之學에의 積功을 통하여 血氣의 치우친 폐단을 없애야함을 들었다. 전자에서 제시한 단련이란 개념은 古今名家의 문장을 효범한 단련을 뜻하기 때문에 기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시의 조탁이나 수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道學工夫로 中和의 성정

을 벗어난 상태를 다스림으로써 문장표현을 ‘정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三) 이와 같이 퇴계는 시나 문장 등이 ‘정심’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왔으므로, 시를 창작하는데도 敬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程朱가 敬이 안된 상태에서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혹은 산수를 遊賞하는 일 등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일등을 敬을 유지하여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퇴계가 이렇게 시를 창작하고 ‘賞自然’을 할 때 敬을 중요시한 것은 放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는 방심을 心の害로 보았기 때문에 敬으로써 방심을 방지하여야 참다운 시, 참다운 ‘賞自然’의 경지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四) ‘賞自然’에는 性情을 함양케하는 수양적 의미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양적 기능을 주목하여 ‘賞自然’에 의한 感興(詩)을 ‘正心’의 산물로 보고, 퇴계 시학의 이론적 근거가 ‘正心’에 있다고 본 것이다.

(五) 이 詩論을 바탕으로 해서 퇴계의 시를 미의식적인 입장에서 조명한다면, 그 미의식은 일단 ‘正心’(性情得正)의 차원에서 형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性情得正이란 도덕적 선으로도 대치될 수 있으니 그 개념은 윤리적 가치로도 볼 수 있다. 시가 윤리적 가치를 구현시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결국 시적 정서가 윤리적 가치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의 관계는 도학주의 문학에서 그 성격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윤리적 가치가 우위에서 미적 가치의 토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미적 가치는 또한 윤리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¹⁰⁶⁾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六) 퇴계의 山水詩에 나타난 형상들을 ‘正心’의 시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興趣의 詩는 흥겨움을 노래한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娛意適情’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閑靜의 시에서는 현실을 떨리하고 산수자연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얻어진 마음의 虛閒恬愉가 ‘正心’의 형

106) 註 44)와 같은 책, p.48 참조

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言學’의 시에서는 研學求道로써 道不在의 現實을 극복코자 한 형상들을 ‘正心’의 궤적으로 보았다. ‘言學’의 시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산수자연이라는 현상을 통해 현상 속의 理를 터득하고자 한 형상들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퇴계의 학문적 사색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포된 심성의 수양적 측면도 간과 될 수 없는 점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퇴계의 正心論과 詩世界를 근거로 해서 그의 문학사적 위상과 그의 문학이 갖는 의의를 가늠해 본다면, 그는 우리 문학사에서 명실공히 도학주의 문학을 실천궁행한 학자적 시인이라 할 수 있고, 그의 문학은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고도의 문학형상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으로써 사림과 문학에서 갖는 그 중요성이 더 한층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